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4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플라톤 『향연』

김 인 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4호

토론팩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플라톤 『향연』

김 인 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김남두
이남인
이태수
정원재
김상현(주간)

발 간 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전임연구단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비를 받아 앞서 2년 간(2002.8-2004.7)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을 수행한 데 이어, 그 후속으로 다시금 2년 동안 (2004.9-2006.8) <토庇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사업을 펴고 있다. 그 첫 번째 성과물을 이제 『철학사상』 별책 제5권으로 엮어낸다.

이 연구 작업은 중요한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개념 체계도를 세워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지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지식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단은 긴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자의 전공별로 나누어, 각각 먼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한 후,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 지도를 만들고,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을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써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불가피하다. 그러

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1차적으로는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이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자산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초석이 되고, 한국의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5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장 / <토릭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지식지도 구축> 연구책임자

백 종 현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4호

토론팩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플라톤 『향연』

김 인 곤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5

머리말

『향연』은 플라톤의 대화편들 가운데 『국가』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작품이다. 철학적 사고를 배태한 문현으로서 그리고 문학 작품으로서의 탁월함이 그만큼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곁으로 드러나는 서술의 화려함도 그렇거니와 이면을 관통하는 구성의 복잡함과 치밀함이 그것을 말해 준다. 사랑을 주제로 다루는 이 대화편은 같은 주제와 관련된 플라톤의 다른 대화편들(『뤼시스』, 『파이드로스』)과 더불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에 관한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향연』이 후대에 끼친 영향사에 대해서는 알렌(R.E.Allen)이 잘 조망해 주고 있어서 그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대화편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평가를 대신한다.

“서양에서 이 대화편의 영향은 인문학의 폭만큼이나 넓다. 원전 연구의 자료로서 이것은 샘이 아니라 거대한 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 이상학』 XII권에서 신학(여기서 신은 인식의 궁극적인 대상일 뿐 아니라 욕망의 궁극적인 대상이기도 하다), 그리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의 관조 이론은 『향연』의 디오티마에게 빛을 지고 있다. 플로티노스의 미에 대한 설명 역시 그렇다. 『향연』이 플로티노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중세 철학과 신학에(아우구스티누스와 보나벤투라, 아퀴나스에게) 끼친 간접적인 영향은 매우 컸다. 피키노(M. Ficino: 1443~99)는 『향연』에서 파우사니아스가 제시한 천상의 에로스와 범속의 에로스 간의 허술한 구별을 취하여, 여기에다 플로티노스에서 빌려온 것의 상당 부분을 결합시켜 예술과 미의 상관 관계에 관한 이론을 주조해 냈다. 피키노의 이론은 미켈란젤로의 생각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었고 르네상스를 부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9세기 독일에서는 아리스토파네스와 낭만주의가 디

오토마의 이성주의를 능가했다. 술 취한 희극 배우의 승리는 『비극의 탄생』(이것은 『향연』의 거꾸로 된 부조리한 복사물이다.)에서 니체의 승인을 받는다. 니체 다음으로 프로이드가 나온다. 그는 욕망과 이성을 벌거시키고 마침내 성스러운(천상의) 에로스는 본질적으로 범속의 에로스임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디오티마가 범속의 에로스는 본질상 성스러운 에로스임을 선언했듯이 말이다.” (1991, 9쪽)

2005년 4월
정암학당에서 김인곤

목 차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1. 플라톤의 생애	1
1.1 생애 요약	1
1.2 생애 해설	2
1.3 생애 연보	4
1.4 저작들	4
2. 『향연』 해제	5
2.1 『향연』 요약	5
2.2 『향연』의 집필 시기	6
2.3 『향연』의 등장인물	7
2.4 『향연』 상세 목차	10
2.5 주요 용어	11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13
1. 철학자 지식지도	13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14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15
3.1 사랑	15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16

제3부 『향연』 내용 분석 연구	21
1. 도입부(172a ~ 178a)	21
1.1 향연 이야기의 전달 과정(172a ~ 174a)	21
1.1.1 전달 과정의 복잡성	22
1.1.1.1 거리 두기	22
1.1.1.2 이야기 내용의 중요성	23
1.1.2 대화의 설정 연대	24
1.1.3 대화의 전달 연대	25
1.2 아리스토데모스의 서언 : 향연 이야기의 시작 부분(174a ~ 175e)	25
1.2.1 헬라스 사회에서의 향연	27
1.3 에뤽시마코스의 연설 주제 제안(177a ~ 178a)	29
1.3.1 연설의 주제 : 에로스 찬양	30
1.3.1.1 찬양 연설의 형식	30
2. 에로스 찬양 연설(178a ~ 199b)	32
2.1 파이드로스의 연설(178a ~ 180b)	32
2.1.1 경이로운 신 에로스	32
2.1.1.1 가장 오래된 신	32
2.1.1.2 가장 좋은 것들의 원인	33
2.1.1.2.1 명예심	34
2.1.1.2.2 희생정신	34
2.2 파우사니아스의 연설(180c ~ 185c)	35
2.2.1 좋은 에로스와 나쁜 에로스의 구별	36
2.2.1.1 법속의 에로스와 천상의 에로스	37
2.2.1.2 동성애	38
2.2.1.2.1 동성애의 사회적 배경	39
2.2.1.2.2 여러 나라의 동성애 관련 법(관습)들	40
2.2.1.2.2.1 아테네의 법(관습)	41

2.2.1.2.3 좋은 에로스와 동성애	41
2.3 첫 번째 막간 : 아리스토파네스의 땘꾹질(185c ~ e)	43
2.4 에檄시마코스의 연설(185e ~ 188e)	43
2.4.1 우주적 원리로서의 에로스	44
2.4.1.1 의술의 에로스	45
2.4.1.2 시가술의 에로스	46
2.4.1.3 천문학의 에로스	47
2.4.1.4 예언술의 에로스	47
2.5 두 번째 막간 (189a ~ c)	48
2.6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 (189a ~ 193d)	48
2.6.1 인간본성의 치유자인 에로스	50
2.6.1.1 인간의 본성 : 신화	50
2.6.1.1.1 반으로 잘린 인간	50
2.6.1.1.2 자신의 반쪽과 하나가 되려는 욕망	51
2.6.1.1.3 욕망(에로스)의 행태들	51
2.6.1.2 본성 회복에 대한 욕망으로서의 에로스	52
2.6.1.3 본성의 회복과 동성애	52
2.7 세 번째 막간 : 소크라테스와 아가تون(193d ~ 194e)	53
2.8 아가تون의 연설(194e ~ 197e)	55
2.8.1 가장 행복한 신 에로스	55
2.8.1.1 에로스의 아름다움	56
2.8.1.2 에로스의 훌륭함	56
2.8.1.3 모든 좋은 것들의 원인인 에로스	57
2.9 네 번째 막간 : 1부의 마무리(198a ~ 199c)	57
2.10 소크라테스의 연설(199c ~ 212c)	58
2.10.1 소크라테스와 아가تون의 예비 논의(199c ~ 201c)	59
2.10.1.1 아름답지 않은 에로스	59
2.10.1.1.1 관계 개념으로서의 에로스	60
2.10.1.1.2 욕망으로서의 에로스	61

2.10.1.1.3 아름다운 것을 결여한 에로스	61
2.10.2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201d ~ 212a)	62
2.10.2.1 에로스의 성격 : 중간자로서의 에로스(201d ~ 204c)	63
2.10.2.1.1 중간적인 암 : 옳은 의견	63
2.10.2.1.2 신령(다이몬)으로서의 에로스	65
2.10.2.1.2.1 다이몬의 기능	65
2.10.2.1.2.2 에로스의 탄생 신화(203a ~ e)	66
2.10.2.1.2.2.1 에로스의 부모	66
2.10.2.1.2.2.2 에로스의 이중성	67
2.10.2.1.3 애지자로서의 에로스(203e ~ 204c)	67
2.10.2.1.3.1 무지의 지	68
2.10.2.2 에로스의 목적 : 행복(204d ~ 205a)	68
2.10.2.2.1 아름다운 것 = 좋은 것	69
2.10.2.3 에로스의 정의 : 좋은 것을 늘 소유하려는 욕망 (205a ~ 206a)	70
2.10.2.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206b ~ 207a)	71
2.10.2.4.1 출산의 목적 : 불사의 소유(207a ~ 208b)	72
2.10.2.4.2 출산의 성격 : 재생산(207c ~ 209e)	73
2.10.2.4.2.1 자기 보존의 원리(207d ~ 208b)	74
2.10.2.4.3 출산의 두 형태 : 육체와 혼에서의 출산(208e ~ 209a)	75
2.10.2.4.3.1 교육을 통한 출산(209b ~ c)	75
2.10.2.4.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209e ~ 210e)	76
2.10.2.4.4.1 개별 육체의 아름다움	77
2.10.2.4.4.2 육체 일반의 보편적 아름다움	78
2.10.2.4.4.3 혼의 아름다움	78
2.10.2.4.4.4 법과 관행의 아름다움	79
2.10.2.4.4.5 지식의 아름다움	80
2.10.2.4.4.6 아름다움 자체로의 상승(210e ~ 212a)	80
2.10.2.4.4.6.1 아름다움의 이데아	81

2.10.2.4.4.6.1.1 아름다움 자체(이데아)의 성격	82
2.10.2.4.4.6.1.2 아름다움 자체(이데아)와 사물 간의 관계 : 분리와 관여	83
3. 소크라테스 찬양 연설(212c ~ 223a)	85
3.1 알키비아데스의 등장(212c ~ 215a)	85
3.2 알키비아데스의 연설 : 소크라테스를 찬양함(215a ~ 222b)	86
3.2.1 가르침의 영향력	87
3.2.2 시침 떼기(에이로네이아)	87
3.2.3 내면의 덕들	89
3.2.3.1 절제 : 알키비아데스의 유혹을 이김(217a3 ~ 219d)	89
3.2.3.2 사색의 능력과 여러 덕들	89
3.2.4 소크라테스의 응답(222c ~ 223b)	90
4. 마무리(223b ~ d)	91
참고문헌	92

일 러 두 기

1. 이 책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전 텍스트는 옥스퍼드 고전(Oxford Classical Texts, 약칭 O.C.T) 중에서 버넷(J. Burnet)이 편찬하여 다섯 권으로 엮은 『플라톤 전집』(Platonis Opera) II권에 수록된 *Symposium*이다. (PLATON, *Symposium*: in John BURNET [ed.], *Platonis Opera*, vol. II, [Oxford Classical Texts], Oxford: Clarendon Press, 1991 [rep. of 1901 ed.])
2. 이 책에서 사용한 한국어 번역본은 아직 출판되지 않은 강철웅의 번역 원고를 사용하였다. 원전에 충실한 번역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역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향후 출판될 번역본은 역자의 수정으로 인해서 이 책에서 인용한 번역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3. 원문을 인용할 때는 플라톤 텍스트의 경우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스테파누스 쪽수’ (Stephanus pages, 137b, b, c, 와 같은 기호표시)를 따랐다. 한국어 번역본도 스테파누스 쪽수가 붙어 있으므로 따로 페이지를 붙이지 않았다.
4. 이 책의 장, 절 표시는 그 내용의 위계에 따라 예를 들어 1.도입부, 1.1 향연 이야기의 전달 과정, 1.1.1 전달 과정의 복잡성 순으로 표시하였다.
5. 3부 각 단락의 맨 앞에 있는 '(q1.1)' 또는 '(e1.2)' 등은 철학지식지도의 웹 구현을 위한 표시일 뿐, 책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

판이 없으므로 책을 읽을 때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q’는 인용을 의미하고, ‘e’는 해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숫자, 예를 들어 '(q1.1)'은 제 1장의 첫 단락을 그리고 '(e1.2)'는 제 1장의 두 번째 단락을 의미한다. 그리고 ‘q’와 ‘e’를 통해서 첫 단락은 인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해설임을 알 수 있다.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플라톤의 생애

1.1 생애 요약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에 아버지 아리스톤과 어머니 페릭티오네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테네의 부유한 상류층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위로 형 둘(글라우콘, 아데이만토스)과 누이 하나(포토네)가 있었다. 어머니 쪽 집안 사람들 중 남자 형제 카르미데스와 사촌 형제 크리티아스는 30인 과두 정권의 일원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플라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다. 그가 소크라테스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은 대략 이십대 부터였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는데, 이 사건은 당시 28세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플라톤에게 철학에 전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40세 되던 해에 그는 2년간 남부 이탈리아와 시켈리아(시칠리아)를 여행한다. 여행 중 타라스(타렌툼)에서 몇몇 피타고라스학파 사람들을 만나 교분을 나누고 시라쿠사이를 방문, 거기서 참주 디오니시오스 1세의 처남인 21살의 디온을 만난다. 디온은 플라톤 철학에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플라톤 역시 철인 통치 이념의 구현자로 기대했던 젊은이였다. 아테네로 돌아온 42세 무렵 아테네 근처에 아카데미아 학원을 세우고 학문 활동과 강의에 주력한다. 60세이던 기원전 367년 플라톤은 디온의 요청으로 두 번째 시라쿠사이를 방문한다. 디오니시오스 1세가 죽고, 뒤를 이은 나이 어린 참주 디오니시오스 2세를 가르쳐 철인 정치를 구현할 좋은 기회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방문은 실패로 끝난다. 디온은

모반 혐의로 추방당하고 플라톤은 우여곡절 끝에 아테네로 돌아오지만 2년을 허비한다. 4년 뒤 디오니시オス 2세의 초청에 응하여 내키지 않는 방문을 하지만 역시 성과 없이 끝난다. 이후 13년을 아카데미아에서 저술과 학문 활동을 계속하다가 347년 80세로 생을 마감한다.

1.2 생애 해설

플라톤은 기원전 428/7년에 태어나서 348/7년에 죽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태어난 해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난 지 5년째 되는 해였고 페리클레스가 죽은 지 2년이 지난 해이며 소크라테스의 나이가 42세 되던 해이다. 그는 아테네의 부유한 상류층 집안의 막내아들이었다. 형제자매는 위로 형 둘(글라우콘, 아데이만토스)과 누이 하나(포토네)가 있었다. 아버지 아리스톤은 일찍 죽었기 때문인지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어머니 페리티오네는 아테네 명문 귀족 출신으로 솔론의 친척이었고, 남편과 사별 후 페리클레스와 친분이 두터웠던 퓨리람페스와 재혼하여 안티폰을 낳게 된다. (안티폰은 『파르메니데스』에서 파르메니데스와 소크라테스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전달해 주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녀의 집안 사람들 중 남자 형제 카르미데스와 사촌 형제 크리티아스는 30인 과두 정권의 일원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플라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다. 전쟁 직전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통치 아래 황금기를 구가하던 터였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은 대략 이십대부터였던 것 같다. 소크라테스와의 교분이 플라톤의 삶과 그의 지적 발전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 그의 여러 저작들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대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70세가 되던 해에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되는데, 이 죽음이 플라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안겨 준다. 당시 28세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플라톤에게 이

사건은 철학에 전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당시의 정치 상황은 이미 청년 플라톤으로 하여금 현실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직후(기원전 404년) 30인 파두 정권이 보여준 잔인하고 전제적인 공포 정치에 플라톤은 크게 실망한다. 그래도 파두 정권의 90일 천하를 뒤집고 들어선 민주파 정권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지켜본다. 그러나 더 이상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 결국 존경하는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현실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청년 플라톤은 정계 진출의 기대를 접는다.

소크라테스 사후 40세까지 플라톤의 행적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 없다. 40세 되던 해에 그는 2년간 남부 이탈리아와 시켈리아(시칠리아)를 여행한다. 남부 이탈리아의 타라스(타렌툼)에서 몇몇 피타고라스학파 사람들을 만나 교분을 나눈다. 정치가이자 장군이며 천문학자인 아르키테스는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시켈리아의 시라쿠사이를 방문, 거기서 참주 디오니시오스 1세의 처남인 21살의 디온을 만난다. 자신의 철학에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플라톤 역시 철인 통치의 이념을 구현해 줄 재목으로 기대했던 이 젊은이로 인해 이후 두 번이나 이곳을 다시 찾게 된다. 아테네로 돌아온 42세 무렵 아테네 근처에 아카데미아 학원을 세우고 학문 활동과 강의에 주력한다.

아카데미아 창건 이후부터 2차와 3차 시켈리아 여행에 나서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플라톤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60세이던 기원전 367년 플라톤은 시켈리아로 와 달라는 디온의 요청을 받는다. 디오니시오스 1세가 죽고, 뒤를 이은 나이 어린 참주 디오니시오스 2세를 가르쳐 철인 정치를 구현할 좋은 기회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방문은 실패로 끝난다. 디온은 모반 혐의로 추방당하고 플라톤은 귀국길이 막힌다. 우여곡절 끝에 아테네로 돌아오지만 2년을 허비한다. 4년 뒤, 디오니시오스 2세의 초청에 응하여 내키지 않는 방문을 하지만 역시 성과 없이 끝난다. 이후 13년을 아카데미아에서 저술과 학문 활동을 계속 하다가 347년 80세로 생을 마감한다. 그가 죽은 후 아카데미아의 운영은 누이 포토네의 아들 스페우시포스가 이어 받는다.

1.3 생애 연보

- 기원전 427년 아테네에서 출생

- 407년경 소크라테스와 만남

- 399년 소크라테스의 처형(플라톤의 나이 28세)

- 388년 첫 번째 이탈리아와 시켈리아 여행

- 385년 아카데미아 설립

- 367년 두 번째 시켈리아 방문

- 361년 세 번째 시켈리아 방문

- 347년 80세의 일기로 사망

1.4 저작들

플라톤의 저작은 위서로 분류되거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들을 제외하면 모두 26에서 27편으로 추정된다. 이 저작들은 보통 집필 시기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뉜다. 초기는 플라톤이 40세, 그러니까 그가 처음 시켈리아를 방문하기 이전까지 쓴 저작들이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تون』, 『에우티프론』, 『카르미데스』, 『라케스』, 『소히피아스』, 『이온』, 『프로타고라스』, 『리시스』, 『대 히피아스』, 『에우티데모스』, 『메넥세노스』, 『고르기아스』, 『국가』1권이 초기 저작으로 분류된다.

중기는 아카데미아를 세울 무렵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저작들이다. 『메논』, 『크라틸로스』, 『향연』, 『파이돈』, 『국가』2권~10권, 『파이드로스』, 『파르메니데스』, 『테아이테토스』이 여기에 속한다. 후기는 플라톤이 67세의 나이로 세 번째 시켈리아 방문에서 귀환한 이후(360년) 8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기까지(347년) 쓴 저술들로서 『티마이오스』, 『크리티아스』, 『소피스트』, 『정치가』, 『필레보스』, 『법률』이 여기에 속한다.

2. 『향연』 해제

2.1 『향연』 요약

이 대화편의 주제는 사랑(에로스)이다. 대화편의 전체 내용은 크게 세 부분(도입부, 찬양 연설, 마무리)으로 나뉜다. 도입부는 이야기의 보고자인 아폴로도로스가 오래 전에 아가تون의 집에서 있었던 향연에 대한 이야기를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전해 듣게 된 사정과 향연에서 에로스 찬양 연설이 시작될 때까지의 과정이며,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찬양 연설 부분은 참석자들 가운데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의 연설들이 전개된다. 그리고 향연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전해주는 것으로 향연 이야기가 종결된다.

에로스 찬양을 연설의 주제로 제안한 것은 에檄시마코스지만 이 주제의 장본인은 파이드로스이다. 그는 좌장으로서 제일 먼저 연설을 시작하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파우사니아스, 에檄시마코스, 아리스토파네스, 아가تون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모두 신으로서의 에로스를 찬양하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파이드로스는 명예심과 용기의 덕을 고취하는 에로스를, 파우사니아스는 육체의 쾌락을 쫓는 에로스가 아닌 혼의 덕을 함양하는 에로스를, 에檄시마코스는 모든 존재자들의 형성 원리로서의 우주적 에로스를, 아리스토파네스는 인간의 상실한 본성을 치유하는 자로서의 에로스를, 그리고 아가تون은 인간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원인으로서의 에로스를 찬양한다. 이들의 연설들은 소크라테스의 연설에서 부분적으로 교정되고 비판받기도 한다.

소크라테스는 아가تون과의 문답식 논의를 통해서 에로스를 아름다움을 결핍한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욕망으로 규정한다. 그런 다음 디오티마를 연설의 주체로 삼고 에로스를 좋은 것의 영구적인 소유욕으로 분석하고, 이 욕망의 충족 방법을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으로 규정하며, 나아가서 출산의 동기가 불사를 얻는데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불사를 얻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정신적인 출산을 추구하는 자가 어떻게 궁극적인 목표인 아름다움 자체에 이르게 되는지를 ‘최고 비의’를 통해서 보여준다. 알키비아데스의 등장으로 향연 분위기는 반전된다.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이 좌장인양 규칙을 무시하고 에로스 찬양 대신 소크라테스 찬양 연설을 한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실례노스와 사튀로스에 비유하면서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의 아이러니한 성격을 묘사한다.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이 끝나고 다시 술자리가 소란스러워지면서 참석자들은 떠나거나 잠이 들고, 소크라테스만이 끝까지 깨어 있다가 그곳을 떠난다.

2.2 『향연』의 집필 시기

이 대화편 내에서 집필 연대를 추정케 하는 대목이 두 군데(182b6이하, 193a2이하) 있다. 도버에 따르면(1980, 10쪽) 이 두 구절은 아가تون이 비극을 썼을 당시가 아니고 플라톤 당시에 어울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암시한다. 182b2에서는 “이오니아의 여러 곳”이 “야만인(페르시아인)들의 지배 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193a에서는 스파르타에 의해서 아르카디아 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기원전 387/6년 안탈키다스의 평화(조약)는 소아시아의 도시들에 대한 페르시아인들의 권리를 인정했다. 그리고 기원전 385년에 스파르타인들은 만티네아의 아르카디아인의 도시를 네 거주 지역으로 나누었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178e~179b3에서 파이드로스는 에라스테스들과 파이디카들로 구성된 군대를 완전히 가정적인 말로 언급한다. 그러나 바로 그런 식으로 구성된 테베의 ‘신성한 집단’이 378년에, 혹은 직후에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 그리고 변론가 폴뤼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를 탄핵하기 위해 저술한 팜플렛에 대항하여, 플라톤이 독자적으로 소크라테스의 참모습을 변명하기 위해 본 대화편을 쓰게 되었다는 추측도 매우 수긍할 만하다. 이 팜플렛은 기원전 390년대 말경에 쓰인 것으로 보

인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향연』의 집필 연대는 기원전 384년에서 379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플라톤의 생애에서 중년기에 해당한다.

2.3 『향연』의 등장인물

(도입부의 이야기 전달 관련 인물)

아폴로도로스(Apollodoros)

이 대화편에서 동료들에게 향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아테네 팔레온 사람(172a, 『파이돈』59b)으로 소크라테스를 마음 깊이 경모한 정열적인 제자(173b, 『파이돈』59a, 크세노폰 『소크라테스의 변론』(28), 크세노폰 『소크라테스의 추억』제3권11). 감수성이 예민하고 격정적 성격의 소유자(173 e).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눈앞에 두고 통곡했다는 기록도 (『파이돈』117d) 그러한 성격을 보여준다. 소크라테스 재판시에는, 플라톤, 크리تون과 함께 스승을 위해 30므나의 벌금을 납부하는 보증인이 되기도 하였다(『소크라테스의 변론』38b).

글라우콘(Glaukon)

아폴로도로스의 친구. 플라톤의 외삼촌인 카르미데스의 아버지(222b) 도 같은 이름이며, 『국가』에 나오는 플라톤의 형제도 같은 이름이다. 이 대화편의 언급(172c)만으로는 어느 글라우콘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제3의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포이닉스(phoinix)

이 대화편에서의 언급(172b) 외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

아리스토데모스(Aristodemos)

아테네의 쿠다테나이온 출신 아폴로도로스와 포이닉스에게 향연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 이 대화편에서 그는 작달막하고 늘 맨발로 나다니

는 사람으로 소크라테스와 함께 향연 모임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묘사된다. 아폴로도로스와 달리 오래전부터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으며 그것도 가장 열렬한 추종자 중 한사람이었다(173b).

(향연 이야기 속의 등장 인물)

아가톤(Agaton)

비극 작가(기원전 445년경 출생). 본 대화편에 나타난 축하연은 기원전 416년 그의 처녀 작품이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173a). 그는 아직 30세에 조금 못 미치는 나이인 것으로 보인다. 그 미모와 여성스러움은 유명하며 그 점은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여자사제(Thesmophoriazusae)』191-192에서 야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축하연이 열린 지 약 10년 후에는 마케도니아왕 알렉산더 궁정에도 초대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그의 시재와 미모는 칭찬거리가 되었다 한다.

파이드로스(Phaidros)

아테네의 미뤼누우스 사람. 아버지는 웨트로클레스(『파이드로스』244a). 『프로타고라스』(315C)에서는 히피아스를 상대로 자연과 천문을 논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이드로스』의 첫머리에서는, 사랑에 관한 토론에 열중하여 뤼시아스의 작품을 암기하는 데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파우사니아스(Pausanias)

아테네의 케라메스 사람. 그에 대해서는 본 대화편의 기록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프로타고라스』(315d-e), 크세노폰 『향연』(8의 32)을 보면 본 대화편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가 아가톤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크세노폰의 작품을 보면 그가 소년과의 동성애를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는 아가톤을 따라 마케도니아의 아르켈라오스 궁정까지 갔다고도 전해진다.

에록시마코스(Eryximachos)

아스크레피オス 의사회에 속하는 의사. 아버지 아크메노스와 함께 파이드로스와 각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177a, 『파이드로스』227a, 269a). 『프로타고라스』(315c)에 의하면, 칼리아스 집에 모인 소피스트들 중 히피아스를 따르는 무리에 그와 파이드로스가 들어가 있다.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아테네의 큐다테나이 사람으로 대표적인 희극작가(기원전 445~ 385년 경). 그의 보수적 경향은 그의 작품 『구름』에서 드러나듯 소크라테스를 소피스트와 동일시하여 그를 위험스런 사람으로 보게 하였다. 그는 『구름』이외에 『여인의 평화』, 『개구리』, 『여인 의회』 등을 썼다.

소크라테스(Sokrates)

기원전 469~399. 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의 나이는 아가톤과 비교해 볼 때 오십대 중반으로 생각된다.

만티네이아의 여인 디오티마(Diotima)

플라톤이 그런 허구의 인물로 보인다. 그 이름 디오티마는 ‘제우스(로부터)의 명예를 얻은 여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제우스는 원래 만물을 조종하는 지자라는 점에서 그녀에게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녀가 아주 뛰어난 지자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화편의 의도에 맞게 에로스에 관한 깊은 뜻을 전해주기에 적당한 인물인 셈이다. 만티네이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중앙부의 산지 아르카디아 동부고원에 있는 평화로운 도시의 이름. 또한 이 도시의 이름과 ‘만티케’ (예언적인 [여성])라는 말의 발음상의 유사점에 주목하여 디오티마의 고향이 만티네이아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알키비아데스(Alcibiades)

기원전 450경~404년. 이 대화편에서 그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아테네 명문 출신이고 재능과 미모 모두 뛰어나 당시 정치, 군사 양면에서 가장 걸출했었던 인물이다. 야망이 컸던 터라 그의 일생은 파란의 연속이었고, 그 과정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무절제했는지가 여실히 나타나 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다가 결국은 탈락되어 만년의 소크라테스가 악평과 오해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기원전 415년 아테네함대의 시켈리아섬 원정을 기획하여 그 총사령관 중 한사람으로 임명되었지만 헤르메스 신상파괴 및 신성 모독 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출정에 앞서 시켈리아로부터 소환을 받게 되자,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스파르타로 도주하여 국가를 배반하는 행동을 하기에 이른다. 최후는 30인 과두정부와 스파르타왕 뤼산드로스에게 진 빚 때문에 망명처 소아시아의 프루기아에서 자객의 손에 살해당한다.

2.4 『향연』 상세 목차

1. 도입부

- (172a~174a) : 아폴로도로스가 전하는 향연 이야기 [이야기의 전달 과정]
- (174a~175e) : 아리스토데모스의 서언 [향연 이야기의 시작 부분]
- (177a~178a) : 에뢰시마코스의 연설 주제 제안

2. 에로스 찬양 연설

- (178a~180b) : 파이드로스의 연설
- (180c~185c) : 파우사니아스의 연설
- (185c~185e) : 첫 번째 막간
- (185e~188e) : 에뢰시마코스의 연설
- (189a~189c) : 두 번째 막간
- (189a~193d) :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

- (193d~194e) : 세 번째 막간
- (194e~197e) : 아가تون의 연설
- (198a~199c) : 네 번째 막간[1부의 마무리]
- (199c~212c) : 소크라테스의 연설
- (199c~201d) : 소크라테스와 아가تون의 예비 논의
- (201d~212a) : 디오티마의 연설

3. 소크라테스 찬양 연설

- (212c~215a) : 알키비아데스의 등장
- (215a~222b) : 알키비아데스의 연설
- (222c~223b) : 소크라테스의 응답

4. (223b~223d) : 마무리

2.5 주요 용어

사랑(에로스)

에로스라는 말은 보통 “~와 사랑에 빠지다” (eran, erasthai)라는 우리 말 표현이 뜻하는 바의 ‘사랑’, 즉 성적 상대자인 특정 개인에 대한 강한 욕망을 의미한다. 이 말은 승리에 대한 욕망처럼 매우 강한 어떤 욕망을 가리킬 수도 있으며, 호메로스에서는 음식과 마실 것에 대한 욕구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말은 수사적 표현이나 의술스러운 표현 외에는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주인과 노예 또는 지배자와 신하 간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강이나 산, 추상적인 것(정의, 경건 등),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힘들(수치, 공포 등)이 신으로 언급되듯이, 에로스도 언제나 신으로 언급되었고, 예술 작품들에서 그렇게 묘사되었다. 헬라스의 필사본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로스’

라는 말을 사용한 자가 날개 달린 젊은 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느낌과 행위의 측면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문맥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향연』의 연설자들도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를 번갈아 사용한다. 신으로서의 에로스는 단지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것일 따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의 성격들(특히 195c6~196b3에서 예술 작품들에서의 표현대로 아가톤이 묘사하는 성격들)은 에로스의 대상들이 갖는 외형적인 성격들이거나 에로스에 민감한 기질들이 보여주는 성격들이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는 말을 성적인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가깝고 친한 사이에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 헬라스어는 ‘필리아’ (philia, 동사는 philein)이다. 그것은 국가들 간의 비교전 상태나 동맹국에 대해 갖는 감정을 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부모나 자식, 가까운 친구 또는 (성적인 욕망과 결부된) 배우자나 애인에 대해 느끼는 사랑을 뜻할 수 있다. 성교 행위는 여신 아프로디테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으며 ‘아프로디시아’ (ta aphrodisia : 동사는 aphrodisiazēin)라 불리었다. 성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가장 통상적인 말은 ‘에피튀미아’ (epithymia)였다.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1. 철학자 지식지도

- 토픽명 : 플라톤
- 토픽 ID : anc_plato
- 상위 토픽명 : 서양고대철학자
- 상위 토픽 ID : anc_philosoper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이름 : platon

영어 이름 : plato

생애 요약 : 1부 1.1

외부 어커런스

생애 요약 : 1부 1.1

생애 해설 : 1부 1.2

생애 연보 : 1부 1.3

인물 사진 :

원어 웹사이트 :

영어 웹사이트 :

한국어 웹사이트 :

연관 관계

저작 : 파이드로스(anc_plato_phaedrus)

관계된 철학자 : 소크라테스(anc_socrates)

기여한 철학 분야 : 형이상학(anc metaphysics)

기여한 철학 학파 : 아카데미아학파 (anc_academic)

기여한 철학 이론 : 이데아론(anc_idea)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 토픽명 : 향연
- 토픽ID : anc_plato_symposium
- 상위 토픽명 : 서양고대철학문헌
- 상위 토픽ID : anc_phil_text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제목 : Symposion

영어 제목 : Symposium

원전 요약 : 1부 2.1

원전 초판 출판 연도 : 1901

외부 어커런스

원전 요약 : 1부 2.1

원전 해설 : 1부 2.2

상세 목차 : 1부 2.3

책표지 그림 :

원어 디지털 텍스트 :

<http://www.perseus.tufts.edu/cgi-bin/ptext?doc=Pers>

eus%3Atext%3A1999.01.0173&query=head%3D%233

영어 디지털 텍스트 :

한국어 디지털 텍스트 :

철학 문헌 내용 토픽맵 : anc_plato_symposium_km.xtm

연관 관계

저자 : 플라톤 (anc_plato)

관계된 철학자 : 소크라테스 (anc_socrates)

기여한 철학 분야 : [철학문헌]에서 기여한 철학 분야 (토픽 ID)

기여한 철학 학파 : 아카데미아 학파 (anc_academic)

기여한 철학 이론 : 이데아론 (anc_idea)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3.1 사랑

- 주요 용어 토픽명 : 사랑
- 주요 용어 토픽 ID : t1
- 철학 용어 토픽명 : 사랑
- 철학 용어 토픽 ID : t_anc_love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 eros

영어 용어 : love

한자 표기 :

용어 설명 : 1부 2.4.1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 1부 2.4.1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 플라톤 (anc_plato)

사용한 철학 문헌 : 향연 (anc_plato_symposium)

사용한 내용 토픽 : 사랑 (c1.1)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1. 사랑

1.1 에로스

1.1.1 에로스 찬양 연설

1.1.1.1. 향연 이야기의 전달 과정 (q1.1.1/e1.1.2)

1.1.1.1.1 거리두기 (q1.1.1.1~2/e1.1.1.3~4)

1.1.1.1.2 향연 이야기의 설정 연대 (q1.1.2.1~2/e1.1.2.3)

1.1.1.1.3. 향연 이야기의 전달 연대 (q1.1.3.1~2/e1.1.3.3)

1.1.1.2 에로스 찬양 연설의 배경

1.1.1.2.1 향연 이야기의 서두 (대표해설e1.2.1/상세해설1.2.2~3)

1.1.1.2.1.1 헬라스 사회에서의 향연 (q1.2.1.1/대표해설e1.

2.1.2~3/상세해설1.2.1.4~5)

1.1.1.2.1.2 연설의 주제와 형식 (q1.3.1/e1.3.2)

1.1.1.2.1.2.1 찬양 연설의 주제 (q1.3.1.1/e1.3.1.2)

1.1.1.2.1.2.2 찬양 연설의 형식 (e1.3.1.1.1)

1.1.1.3 찬양연설의 내용

1.1.1.3.1 경이로운 신 에로스 (q2.1.1.1/e2.1.1.2, e2.1.1)

1.1.1.3.1.1 가장 오래된 신 (q2.1.1.1.1/e2.1.1.1.2)

- 1.1.1.3.1.2 가장 좋은 것들의 원인 (q2.1.1.2.1/e2.1.1.2.1.2)
- 1.1.1.3.1.2.1 명예심 (q2.1.1.2.1.1/e2.1.1.2.1.2)
- 1.1.1.3.1.2.2 희생정신 (q2.1.1.2.2.1/e2.1.1.2.2.2~3)
- 1.1.1.3.2 덕을 길러주는 신 에로스 (q2.2.1/e2.2.2~3)
- 1.1.1.3.2.1 좋은 에로스와 나쁜 에로스의 구별
(q2.2.1.1/e2.2.1.2)
- 1.1.1.3.2.1.1 범속의 에로스와 천상의 에로스
(q2.2.1.1.1~2/e2.2.1.1.3)
- 1.1.1.3.2.1.2 동성애 (e2.2.1.2.1~2)
- 1.1.1.3.2.1.2.1 동성애의 사회적 배경 (e2.2.1.2.1.1~2)
- 1.1.1.3.2.1.2.2 여러 나라의 동성애 관련 법(관습)들
(q2.2.1.2.2.1 /e2.2.1.2.2.2)
- 1.1.1.3.2.1.2.2.1 아테네의 법
(q2.2.1.2.2.1.1/e2.2.1.2.2.1.2)
- 1.1.1.3.2.2 좋은 에로스와 동성애
(q2.2.1.2.3.1/e2.2.1.2.3.2~3)
- 1.1.1.3.3 우주적 원리로서의 에로스 (q2.4.1.1/e2.4.1.2)
- 1.1.1.3.3.1 의술의 에로스 (q2.4.1.1.1/e2.4.1.1.2)
- 1.1.1.3.3.2 시가술의 에로스 (q2.4.1.2.1/e2.4.1.2.2~3)
- 1.1.1.3.3.3 천문학의 에로스 (e2.4.1.3.1)
- 1.1.1.3.3.4 예언술의 에로스 (e2.4.1.4.1)
- 1.1.1.3.4 인간본성의 치유자인 에로스 (대표해설 e2.6.1/상세해설 e2.6.2~4)
- 1.1.1.3.4.1 인간의 본성 : 신화 (e2.6.1.1.1)
- 1.1.1.3.4.1.1 반으로 잘린 인간 (e2.6.1.1.1.1)
- 1.1.1.3.4.1.2 하나가 되려는 욕망 (e2.6.1.1.2.1)
- 1.1.1.3.4.1.2.1 에로스의 행태들 (e2.6.1.1.2.1.1)
- 1.1.1.3.4.2 본성 회복에 대한 욕망으로서의 에로스
(q2.6.1.2.1/e2.6.1.2.2)

- 1.1.1.3.4.2.1 본성의 회복과 동성애 (q2.6.1.3.1/e2.6.1.3.2)
- 1.1.1.3.5 가장 훌륭한 신 에로스 (e2.8.1)
- 1.1.1.3.5.1 에로스의 아름다움 (e2.8.1.1.1~3)
- 1.1.1.3.5.2 에로스의 훌륭함 (e2.8.1.2.1)
- 1.1.1.3.5.2 모든 좋은 것들의 원인인 에로스 (e2.8.1.3.1)
- 1.1.1.3.6 불사에 대한 욕망으로서의 에로스 (e2.10.1~2)
- 1.1.1.3.6.1 에로스의 성격 (e2.10.1.1)
- 1.1.1.3.6.1.1 아름답지 않은 에로스
(q2.10.1.1.1/e2.10.1.1.2~3)
- 1.1.1.3.6.1.1.1 관계 개념으로서의 에로스
(q2.10.1.1.1.1/e2.10.1.1.1.2)
- 1.1.1.3.6.1.1.2 욕망으로서의 에로스
(q2.10.1.1.2.1/e2.10.1.1.2.2)
- 1.1.1.3.6.1.2 중간자로서의 에로스 (e2.10.2.1.1)
- 1.1.1.3.6.1.2.1 중간적인 얇(옳은 의견) (q2.10.2.1.1.1/대표 해설e2.10.2.1.1.2~3/상세해설e2.10.2.1.1.4)
- 1.1.1.3.6.1.2.2 신령(다이몬)으로서의 에로스
(e2.10.2.1.2.1)
- 1.1.1.3.6.1.2.2.1 신령의 기능 (q2.10.2.1.2.1.1)
- 1.1.1.3.6.1.2.2.2 에로스의 탄생 신화 (e2.10.2.1.2.2.1)
- 1.1.1.3.6.1.2.2.2.1 에로스의 부모(e2.10.2.1.2.2.1.1)
- 1.1.1.3.6.1.2.2.2.2 에로스의 이중성(e2.10.2.1.2.2.2.1)
- 1.1.1.3.6.1.3 애지자로서의 에로스 (e2.10.2.1.3.1)
- 1.1.1.3.6.1.3.1 무지의 지
(q2.10.2.1.3.1.1/e2.10.2.1.3.1.2~3)
- 1.1.1.3.6.2 에로스의 목적 : 행복 (q2.10.2.2.1/e2.10.2.2.2)
- 1.1.1.3.6.2.1 아름다운 것=좋은 것
(q2.10.2.2.1.1/e2.10.2.2.1.2)
- 1.1.1.3.6.3 에로스에 대한 정의

1.1.1.3.6.3.1 좋은 것을 늘 소유하려는 욕망 (q2.10.2.3.1/ 대표해설e2.10.2.3.2~4/상세해설e2.10.2.3.5)

1.1.1.3.6.4 에로스의 일(기능)

1.1.1.3.6.4.1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
(q2.10.2.3.1/e2.10.2.3.2~5)

1.1.1.3.6.4.1.1 출산의 목적 : 불사의 소유
(q2.10.2.4.1/e2.102.4.2)

1.1.1.3.6.4.1.2 출산의 성격 : 재생산 (q2.10.2.4.2.1/대표해설e2.10.2.4.2.2./상세해설e2.10.2.4.2.3)

1.1.1.3.6.4.1.2.1 자기 보존의 원리
(q2.10.2.4.2.1.1/e2.10.2.4.2.1.2)

1.1.1.3.6.4.1.3 두 종류의 : 육체와 혼에서의 출산
(e2.10.2.4.3.1)

1.1.1.3.6.4.1.3.1 교육을 통한 출산
(q2.10.2.4.3.1.1/e2.10.2.4.3.2~3)

1.1.1.3.6.4.2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
(q2.10.2.4.4.1/e2. 10.2.4.4.2)

1.1.1.3.6.4.2.1 개별 육체의 아름다움
(q2.10.2.4.4.1.1/e2.10.2.4.4.1.2)

1.1.1.3.6.4.2.2 육체 일반의 보편적 아름다움
(q2.10.2.4.4.2.1/e2. 10.2.4.4.2.2)

1.1.1.3.6.4.2.3 혼의 아름다움
(q2.10.2.4.4.3.1/e2.10.2.4.4.3.2)

1.1.1.3.6.4.2.4 법과 관행의 아름다움
(q2.10.2.4.4.4.1/e2.10.2.4.4.4.2)

1.1.1.3.6.4.2.5 지식의 아름다움
(q2.102.4.4.5.1/e2.102.4.4.5.2)

1.1.1.3.6.4.2.6 아름다움 자체로의 상승
(q2.10.2.4.4.6.1/e2.10.2.4.4.6.2)

1.1.1.3.6.4.2.6.1 아름다움의 이데아 (대표해설 e2.10.2.4.
4.6.1.1/상세해설 e2.10.2.4.4.6.1.2~3)
1.1.1.3.6.4.2.6.1.1 아름다움 자체(이데아)의 성격
(e2.10.2.4.4.6.1. 1.1~2)
1.1.1.3.6.4.2.6.1.1.2 아름다움 자체(이데아)와 사물 간의
관계(e2. 10.2.4.4.6.1.2.1~2)

제 3 부 『향연』 내용 분석 연구

1. 도입부(172a~178a)

1.1 향연 이야기의 전달 과정(172a~174a)

(q1.1.1) 아폴로도로스, 안 그래도 막 자네를 찾아다니던 참이었네. 아가톤과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알키비아데스 그리고 그때 그 만찬(syndeipnon)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모임(synousia)에 대해, [그들이 했던] 사랑에 관한 연설들(erōtikoi logoi)이 어떤 것들이었나 물어보고 싶어서 말일세. 다른 누군가가 필리포스의 아들 포이닉스에게서 들은 걸 내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네도 알고 있다고 말하더군. 그는 아무 것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했거든. 그러니 자네가 몸소 내게 이야기해 주게. 자네 동료가 한 연설들을 자네가 전달해 주는 것이 아주 마땅하니 말일세.(172b)

(e1.1.2) 아폴로도로스는 며칠 전에 글라우콘에게 해 주었던 향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다시 해준다. 그 향연은 오래전에 아가تون의 집에서 있었는데, 거기에는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참석하여 사랑(에로스)에 관한 연설을 했었다. 아폴로도로스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고 참석했던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아폴로도로스는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들은 내용의 일부를 나중에 소크라테스에게 물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 받았다. 그런데 글라우콘이 며칠 전에 아폴로도로스에게 향연 이야기를 해 달라고 청했던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서 그 향연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했지만 뭐가 뭔지 전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포이닉스에게서 전해 들었으며, 포이닉스는 다시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1.1.1 전달 과정의 복잡성

1.1.1.1 거리 두기

(q1.1.1.1.1) 파이드로스가 대강 이런 연설을 했고, 파이드로스 뒤로 다른 몇몇 연설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자기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그는 그 연설들을 제쳐 두고 파우사니아스의 연설을 이야기해 주었네.(180c)

(q1.1.1.1.2) 그런데 각자가 말한 것들 전부는 아리스토데모스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고 나 또한 그 사람이 말해준 것들 전부를 기억하지는 못하네. 다만 그가 가장 잘 기억하고 말해준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억할 만하다고 내게 보인 것들을 자네들에게 말해 주겠네. 각자의 연설을 [차례대로] 말이네.(178a)

(e1.1.1.1.3) 향연 이야기가 전달되는 경위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아폴로도로스가 아리스토데모스로부터 들은 것을 그의 동료에게 전하는 식의 이중적인 화법은 대화의 전달 과정에 자주 되살아난다. (예를 들면, 180c, 223c~d에서) 그것은 실제 있었던 대화와 전달자의 이야기 사이의 시간적 거리를 독자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준다. 이 거리두기의 한 가지 효과는 기원전 416년에 아가تون의 집에서 있었던 향연에서의 대화 내용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다. 향연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 암시해 주는 대목도 있다. 아폴로도로스는 아리스토데모스가 향연에 참석한 모든 연설자들의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고, 자신도 아리스토데모스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178a). 이러한 이야기 전달 방식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필요한 사실들을 간추려 재구성할 여지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장치일 수 있다. 몇 군데 명백한 연대착오적인 사건들이(182b, 193a) 이런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e1.1.1.1.4) 내용적으로나 정황적인 증거들로 볼 때, 소크라테스의

연설이 향연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독자로 하여금 직접적인 접근을 방해하는 이 거리두기는 소크라테스의 연설, 그 중에서도 디오티마의 최고 비의(秘儀)에 대한 가르침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디오티마가 소개하는 최고 비의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향연 이야기의 최초 전달자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아리스토데모스인 것도 흥미롭다. 이것은 아마도 『향연』의 전체 구성에서 알키비아데스의 연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소크라테스 자신이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연설 내용을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 해주는 것은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1.1.1.2 이야기 내용의 중요성

(q1.1.1.2.1) 에檄시마코스, 아무도 자네에게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 것 이네. 나로서는 사랑(에로스)에 관한 일들(ta erōtika) 말고 그 어떤 다른 것도 알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터라서 아마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 (178d)

(q1.1.1.2.2) [...] 하지만 저 사람에게 들은 것들 가운데 일부를 나중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도 여쭤 보았는데, 선생님은 그것들이 저 사람이 이야기해 준 대로라고 확인해 주셨네.(173b)

(e1.1.1.2.3) 전달 경위의 복잡함은 향연 이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전달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글라우콘)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경로는 하나가 나이고 두 갈래이다. 172b)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향연 이야기가 사람들 가운데 널리 회자되고 있었고 그만큼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음을 암시한다. 소크라테스의 연설이 그 중요성의 중심에는 놓여 있다. 이것을 암시하는 대목은 두 곳이다. 아폴로도로스는 아리스토데모스에게서 들은 이야기의 일부를 소크라테스에게 다시 확인 받는다.(173b) 이것은 향연 이야기의 전달 과정에 거리를 두면서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에로스 찬

양을 담론의 주제로 삼자는 에檄시마코스의 제안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에로스에 관한 일(ta erōtika) 외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대목도 (177d) 눈에 뜨인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주제에 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답을 내 놓는 대신에 스스로 무지(無知)를 자처하면서 상대방이 가진 의견의 불충분함과 한계를 폭로하고는 것으로 끝난다. 그런데 여기서의 소크라테스는 좀 다르다. 유독 에로스에 관해서만은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마도 뒤에 있을 연설에서 사람들에게 내 놓을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1.1.2 대화의 설정 연대

(q1.1.2.1) [향연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직 아이였을 때, 아가تون이 첫 비극 작품으로 [경연에서] 우승했을 때였네. 그 자신과 가무단원들이 우승 기념 제사(ta epinikia)를 드리던 날의 바로 다음날이지.(173a)

(q1.1.2.2) 아가تون이 말을 마치자, 그 젊은이가 자신에게도 또 그 신에게도 어울리게 말을 했기 때문에 참석자들 모두가 환호했다고 아리스토데모스는 말했네.(198a)

(e1.1.2.3) 이 대화편은 어떤 시점에서 행해졌던 대화 내용을 누군가가 나중에 전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실제로 대화가 행해졌던 연대와 그것을 전하고 있는 연대가 구분된다. 대화 설정 연대를 추정하게 하는 대목은 아가تون이 첫 비극 작품으로 우승했음을 알려주는 곳이다,(173a) 아테나이오스에 따르면 아가تون이 우승했던 해는 에우페모스가 아르콘으로 있던 시기로 기원전 416년, 자세히 말하면 가멜리온 달(1-2월)에 행해진 레이나이아 축제, 즉 디오뉘시오스 축제 때였다. 당시 아가تون은 30세 가까운 ‘젊은이’ 였으며(198a), 소크라테스는 55세였고 알키비아데스는 약 34세로 그의 화려한 경력의 절정기를 구가하던 시점으로 그가 선동한 기원전 415년의 시켈리아 원정 한해 전이었다.

1.1.3 대화의 전달 연대

(q1.1.3.1) 하지만 저 사람(아리스토데모스)에게 들은 것들 가운데 일부를 나중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에게도 여쭤 보았는데, 선생님은 그것들이 저 사람이 이야기해 준 대로라고 확인해 주셨네.(173b)

(q1.1.3.2) [...] 아가تون이 고향인 이곳을 떠나 산 게 여러 해 되었고, 또 내가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날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혹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온 게 아직 3년 이 채 안 되었다는 걸 자넨 알지 않는가?(172c)

(e1.1.3.3) 대화를 전해주는 연대는 모호한 구석이 있지만 추정 가능하다. 이야기의 전달자가 직접 소크라테스에게 해당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173b) 그 시기는 소크라테스가 사형 당하기(기원전 399년) 이전임이 분명하고, 아가تون이 죽은 해가 기원전 401년경이므로 그 이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보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해 동안 아가تون이 아테네를 떠나 있었던 것으로 서술된다(172c). 아가تون이 아테네를 떠난 것은 기원전 411년 후였다. 기원전 411년에 그는 안티폰이 자신을 변호하는 연설을 들었으며, 같은 해에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Thesmophoriazusae*)에서 통렬한 야유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가تون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아르켈라오스의 궁전으로 간 것은 기원전 405년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보면, 아리스토데모스와 아폴로도로스가 대화 내용을 전달해 준 시기는 아가تون의 연회에서 실제 대화가 있은 후 10여년 경과한 402년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2 아리스토데모스의 서언 : 항연 이야기의 시작 부분(174a~175e)

(e1.2.1) 아리스토데모스가 산뜻하게 차려입은 소크라테스와 마주치자 여느 때와는 다른 그의 차림새에 놀한다. 소크라테스는 아가تون의 집에서 열리는 만찬에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아리스토데모스에게 함께 가기를 권

한다. 아리스토데모스는 향연에 초대 받지 않았기에, 소크라테스가 초대한 것으로 밀하기로 하고 함께 아가تون의 집으로 향한다. 가는 도중에 소크라테스는 생각에 몰두하게 되어 뒤쳐지고 아리스토데모스 혼자 아가تون의 집에 도착한다. 아가تون은 그를 환영하며 에뢰시마코스 옆에 앉게 한다. 소크라테스가 이웃집 문 앞에서 사색에 잠겨 있다는 하인의 말을 듣고 아가تون은 모시고 들어오게 하자고 여러 번 재촉하나 아리스토데모스는 사색에 잠기는 일은 그분의 버릇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만류한다. 식사 중 간쯤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오고 아가تون은 그에게 자기 옆자리를 권하면서 오는 길에 사색에서 얻은 지혜를 접촉을 통해 얻고 싶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지혜가 접촉해서 빈곳으로 흐르는 것이라면 오히려 아가تون의 지혜가 자신에게 흘러들 테니까 더 환영이라고 응수한다. 그러면서 아가تون의 지혜에 대한 중인은 3만 명이 넘는다는 말로 전날 비극경연 대회의 우승을 암시한다. 아가تون은 소크라테스에게 방자하다고 나무라며 지혜의 우열은 디오뉘소스의 판정에 맡기고 우선은 만찬에 임하자고 권한다.

(e1.2.2) 아리스토데모스는 작고 맨발로 다니며 부자들을 경멸하며, 절제있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향연에 초대를 받았다. 소크라테스의 추종자로서 그는 향연 모임의 마지막 연설자인 알키비아데스와 묘한 대조를 보인다. 알키비아데스 역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며 외적으로는 아리스토데모스가 결여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수려한 용모와 부, 귀족 출신이며 정치적 영향력 등, 두 사람의 공통점은 소크라테스를 그의 지혜 때문에 사랑하지만, 그만한 지혜를 갖추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e1.2.3) 이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인상 깊은 초상을 그린다. 주로 마지막 연설자인 알키비아데스를 통해서 그리고 있지만, 이 장면에서도 소크라테스의 특징적인 성격과 모습을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가تون의 잔치 집에 가기 위해 특별히 신을 신고 멋을 낸 모습이지만 그는 평소에 맨발로 다닌다.(추운 겨울, 병영 생활에서도 맨발이다. 220b) 그의 재치와 장난기는 아리스토데모스에게

같이 가기를 권하면서 속담을 고쳐 짓는 장면에서 두드러진다(174b). 그리고 아가تون과 지혜의 우열을 다투는 대목(175e)에서도 그렇고, 아가تون의 연설이 자신을 주눅 들게 한다면서 그것을 고르곤의 머리에 빗대는 대목에서도 그렇다(198c). 소크라테스가 아가تون의 잔치 집에 가는 도중에 생각에 몰두하게 되는 장면은 예사롭지 않은 그의 사색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174d)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에서도 사색에 빠지는 장면이 나온다. 220c) 이 도상(途上)에서의 사색은 그의 평소와 다른 차림새와 함께 소크라테스가 가고 있는 곳과 거기서의 역할에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1.2.1 헬라스 사회에서의 향연

(q1.2.1.1)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앉아서 나머지 사람들과 식사를 마쳤고, 그들은 헌주를 하고 그 신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고(*aisantes ton theon*) 또 다른 관습적인 일들을 행한 후에 술 마시는 일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네.(176a)

(e1.2.1.2) ‘심포지엄’은 불충분하나마 향연(주연)으로 번역할 수 있다. 헬라스의 심포지엄은 오늘날의 사적인 만찬회에 가깝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무엇보다도 헬라스 사회의 남성 지배적 특징을 반영한다. 심포지엄의 주인과 손님들은 모두 남자였고 안드론에서 열렸다. 안드론은 주택에서 남자들의 영역에 속하는 중요한 방이었다. 아르카이시대(기원전 7~6세기) 헬라스에서 심포지엄은 지배계층인 귀족들 사이에서 남성들 간의 관계를 결속시켜주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귀족 계급의 젊은 남자들과 소년들은 술 따르는 자와 참관자로서 참여했으며, 윤리적 조언을 받으면서 동성애적인 관심에 응하였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성인 남자들의 사회생활에 입문했던 것이다.

(e1.2.1.3) 이후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에서 (플라톤의 대화편들이 시작되는) 심포지엄은 주로 귀족 계층의 오락으로 존속하였다. 당시에는 참

가자들이 성인 남자들이었다. 자유인으로 태어난 소년들은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고, 시중을 들고 오락을 제공하는 남녀 노예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식사와 그에 뒤따르는 주연(酒筵)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도 오늘날의 만찬회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주연은 완전하게 의례(儀禮)화되어 있었다. 식사가 치워진 후에 참석자들은 손을 씻었다. 그리고 때로는 화관을 쓰고 향내 나는 기름을 바르기도 했다. 주연은 물로 희석된 포도주를 시음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신령(다이몬)을 기리며 술을 부었으며, 신령을 위한 찬가가 곁들여졌다. 이어서 희석사발(크라테르)의 물에 포도주를 부어 섞었다. 보통의 경우 물과 포도주의 비율은 5 : 2였다. 희석된 포도주는 오늘날의 맥주 농도와 비교할 만했다. 포도주의 희석 비율, 섞여야 할 사발들의 수(세 개가 표준이었다.), 그리고 사용할 잔의 크기를 정하기 위해서 참석자들이 협의를 거쳐서 한 사람을 선발했다.

(e1.2.1.3) 안드론은 사각형으로 된 방으로 4번 모두 바닥 보다 높은 마루가 높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침상이 일곱에서 열한 개까지 놓였다. 손님들은 침상 위에서 왼 팔꿈치로 상반신을 괴고 방석에 비스듬히 기대 누웠다. 보통 한 침상에 두 명씩이다. 오른쪽 손으로는 앞에 놓인 낮은 테이블에서 음식을 가져다 먹고 술을 마신다. 침상들은 출입문 쪽에는 간격을 두고 사각형으로 배열되는데, 첫 번째 자리(문 앞자리)가 가장 선호되었던 것 같다. 아마도 음식을 시중을 먼저 받기 때문인 것 같다. 제일 마지막 자리가 말석이다. 제일 마지막 자리는 그 반대다. 포도주와 노래 또는 연설의 순번은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창이 있는 방에는 흔히 벽화들이 걸렸고 그 장면들은, 잔과 장식된 희석사발에 그려진 그림들처럼, 향연이나 성애의 장면들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전체 분위기가 폐쇄적이며 특권적인 향연의 공간을 형성했으며 그 속에서 참석자들은 서로 간에 술(포도주)과 이야기, 음악 그리고 성적인 즐거움을 나누는 데 집중했다. 성적 놀이의 상대는 여성(노예) 창부였으며 때에 따라서는 남성이 상대가 되기도 했다. 그들은 음악을 연주하거나 시중을

드는 자들이었다. 향연에서 그들의 성적인 역할은 성행위보다는 성적 희롱의 상대였던 것 같다.

(e1.2.1.4) 플라톤의 향연은 이런 사회적 관습의 전형으로서 유용한 증거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 대화편에서 향연의 주관자인 에뤽시마코스는 별스럽게도 피리 부는 소녀들을 내 보낸다. 이것은 에로스를 찬양하는 일련의 연설과 더불어 이 향연의 지적인 성격을 시사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남성 동성애의 여지를 마련해 준다. 소크라테스의 연설로 인해 형성된 강한 철학적 분위기는 뒤에 가서 술 취해 흥청거리는 알키비아데스와 그 일행들 그리고 피리 부는 소녀의 등장으로 깨진다.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이 직접 주연의 좌장으로 나서서 포도주를 그냥 마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함으로써, 그리고 에로스 신을 찬양하는 대신에 소크라테스를 찬양하며 소크라테스와 자신 사이의 성애 관계 속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주연의 규칙을 깨뜨린다.

1.3 에뤽시마코스의 연설 주제 제안(177a~178a)

(q1.3.1) [...] 우리 각자가 오른쪽 방향으로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에로스에 대한 찬양 연설(logos epainos)을 할 수 있는 한 가장 아름답게 해야 한다고 난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데 파이드로스가 맨 먼저 해야겠네. 맨 처음 자리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논의(logos)의 아버지이기도 하니 말일세.(177d)

(e1.3.2) 식사를 마치고 주연(酒筵)에 들어가기에 앞서 파우사니아스는 전날의 음주가 과했으니 오늘은 술을 가볍게 마시자고 제안한다. 에뤽시마코스도 동의하며 의술의 입장에서 과음이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거둔다. 모두들 가볍게 마시자는데 동의하자, 에뤽시마코스는 피리 부는 소년을 내보내고 담론으로 주연을 즐기자고 하면서 담론의 주제를 제안한다. 아쿠메노스의 아들 에뤽시마코스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의사이

다. 그와 파이드로스는 가까운 친구이다.(176d~e, 177a~d) 의사로서의 그의 직업은 그의 연설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도 지배한다. 알키비아데스와 그의 일행들이 들어와서 모임이 소란스러워 졌을 때, 그와 파이드로스는 자리를 떠난다. 그는 담론의 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주 마치 자신이 모임을 책임진 사람처럼 행동한다.(189a~c, 193d~194a, 214a~e)

1.3.1 연설의 주제 : 에로스 찬양

(q1.3.1.1) 내가 하게 될 ‘이야기(mythos)는 내 것이 아니라’ 여기 이 파이드로스의 것이네. 파이드로스는 매번 나에게 짜증을 내며 말하거든. ‘에뤽시마코스, 다른 신들에게는 시인들이 지어 놓은 송가(頌歌 : hymnoi)와 찬가(讚歌 : paiones)가 있는데, 그토록 오래되고 그토록 위대한 신인 에로스에게는 도대체 이제까지 살았던 하고많은 시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그 어떤 찬미가(enkōmion) 하나 지어 놓은 게 없다는 게 기이한 일 아닌가?(177a~b)

(e1.3.1.2) 에뤽시마코스는 파이드로스가 자신에게 누누이 했던 불만을 소개하고 에로스 찬양을 담론의 주제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파이드로스의 불만은 다른 신들은 모두 시인들의 찬양을 받고 있고,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들에 대한 찬사의 글도 있으며 심지어는 소금의 유용성도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위대한 신 에로스에 대한 찬가가 없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에로스에 관한 일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에뤽시마코스의 제안을 적극 반기며 나서자 모두들 그렇게 하기로 동의한다.

1.3.1.1 찬양 연설의 형식

(e1.3.1.1.1) 찬양 연설은 고대의 모범적인 수사술의 한 형식이다. 이 연설 형식의 지침은 기원전 300년경의 수사술 논문에 들어 있다. 그리고

『향연』에서의 찬양은 분명히 이 형식을 따른다. 찬양이 포함해야 할 내용은 이런 것이다. (1)찬양대상의 기원 또는 혈통(계보), 또는 고귀한 출생(가문). (2)힘이나 아름다움 같은 좋은 자질. (3)지혜, 정의, 용기와 같은 덕(뛰어남)과 명성을 얻는 행위. (4)생활 습관이나 방식. (5)다른 사람들의 업적과 대조되는 업적들. 그리고 이 연설은 신과 승배자 간의 관계의 적절한 형태가 호혜 관계, 즉 신을 승배하고 신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관계임을 전제한다.(Gill, 1999, 20쪽)

2. 에로스 찬양 연설(178a~199b)

2.1 파이드로스의 연설(178a~180b)

(e2.1.1) 파이드로스의 연설은 참석자들의 연설들 가운데 가장 짧고 여러 가지 점에서 불충분하다. 버리(G.R. Bury)는 이렇게 지적한다. “파이드로스의 연설은 비록 문제와 배열의 단순함에서 장점이 없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빈약하다. 도덕적인 입장은 일상적인 시민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연설자는 일관성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논증의 방법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소피스트적인 분위기를 상당히 드러낸다.” (1969, 25쪽)

2.1.1 경이로운 신 에로스

(q2.1.1.1) 에로스는 인간들과 신들 사이에서 위대하고 경탄할 만한 신이며, 그것은 다른 많은 방식으로도 그렇지만 특허나 그 기원(gensis)에 있어서 그렇다고 말이네.(178a) // 그리고 가장 오래된 자로서 그는 우리에게 있는 최대로 좋은 것들의 원인이네. 178c)

(e2.1.1.2) 파이드로스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시나 그곳에 말해지고 있는 신화 등 이른바 문헌학적 자료가 될 만한 내용을 인용해 가면서 에로스가 오래되고 고귀한 것임을 칭송한다. 그가 에로스를 찬양하는 근거는 에로스의 출생과 하는 일(기능 또는 업적)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주제들은 찬양 연설의 모범 주제들 가운데 속한다. 이 두 주제에 따른 찬양 연설 방식은 이후 아가تون의 연설과 소크라테스의 연설에서도 받아들여진다.

2.1.1.1 가장 오래된 신

(q2.1.1.1.1) 헤시오도스는 맨 처음에 카오스(틈)가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늘 모든 것들의 굳건한 터전인 가슴 넓은 가이아(땅)가, 그리고

에로스가> 생겼다고 말하네. 아쿠실레오스도 헤시오도스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카오스 다음으로 이 둘 즉 게(땅)와 에로스가 생겼다고 말이야. 그리고 파르메니데스는 그 기원(gensis)에 대해 <[그녀는] 모든 신들 가운데 제일 먼저 에로스를 고안해 냈다>고 말하네.(178b)

(e2.1.1.1.2) 파이드로스는 에로스가 가장 오래된 신 가운데 하나라는 증거로서 에로스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산문 작가든 시인이든 그의 부모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헤시오도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시구를 인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파이드로스 나름의 경솔한 판단이다. 여러 작가들이 에로스의 부모를 언급하고 있다. 알카이오스는 제퓌로스와 이리스의 아들로(단편 13), 시모니데스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아들로(단편 43), 에우리피데스는 제우스의 아들로(『히폴뤼토스』 534), 사포는 계와 우라노스의 아들로(단편 132), 이비코스는 카오스의 아들로 간주한다(단편 31). 그리고 이 대화편의 소크라테스 연설에서도 에로스는 메티스와 포로스의 아들로 묘사된다.(203b이하) (Bury, 1969, 22쪽)

2.1.1.2 가장 좋은 것들의 원인

(q2.1.1.2.1) 어떤 것이 아름답게(kalōs) 살려는 사람들을 전 생애 동안 이끌어가야 한다고 할 때의 이것을, 혈연이나 공직이나 부(富)나 다른 아무 것도 에로스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넣어 줄 수 없기 때문이네. 그런데 [방금 말한] 이것이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 수치스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치스러워 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는 열망하는 것(philotimia)을 말하네. 이런 것들 없이는 국가든 개인이든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지.(178c~d)

(e2.1.1.2.2) 파이드로스가 말하는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란 “덕과 행복” (180b)이다. 덕과 행복은 “아름다운 삶” (178c), 즉 잘사는 삶의 요체로서 다른 연설자들의 연설에서도 바탕에 놓여 있는 관심사이다. 문제는 덕과 행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파이드로스의 연설은 명예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강조하며, 이와 관련해서

주로 전쟁에서 요구되는 군사적인 용기의 덕을 내세운다.

2.1.1.2.1 명예심

(q2.1.1.2.1.1)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어떤 소년을] 사랑하는 (erāi) 사람이 뭔가 수치스런 일을 하다가, 혹은 누군가에 의해 수치스런 일을 당하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다가, 그런 일들이 공연히 밝혀지는 경우, 아버지나 동료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 들키는 것보다 소년 애인에게 들키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하리라는 것이네.(178d)

(e2.1.1.2.1.1.2) 수치심이나 명예심은 애인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작용한다. 누구든 자신의 애인에게 아름답게(훌륭하게) 보이기를 원하며 추하게 (겁쟁이로)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렇듯 애인들 간에는 서로를 의식하면서 수치스런 일들을 멀리하고 명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열망이 작용한다. 그래서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발휘하게 하며 때로는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는 패하지 않을 것이다. 파이드로스가 말하는 애인 관계는 남자 성인과 소년 간의 동성애이다.

2.1.1.2.2 희생정신

(q2.1.1.2.2.1)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는 자들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하네.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인들까지도 말일세. 펠리아스의 딸 알케스티스도 바로 나의 이 말을 지지하는 충분한 증거를 헬라스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네. 그녀만이 자기 남편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지.(179b)

(e2.1.1.2.2.2) 파이드로스는 에로스가 자기 희생정신을 고취시킨다는 증거로서 남편 아드메토스를 위해 죽는 알케스티스와 죽은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위해 죽음을 택하는 아킬레우스를 언급한다. 여기서 파이드로스는 알케스티스나 아킬레우스는 ‘에라스테스’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애로매노스’ (사랑받는 자)인데, 파이드로스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소년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런가 하면 오르페우스는 겁쟁이로 묘사한다. 그는 아내를 만나러 하데스에 갔으나 살아서 돌아갈 궁리만 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는 여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다.

(e2.1.1.2.2.3) 파이드로스가 증거로 든 세 가지 예들은 일관성이 없거나 왜곡되어 있다. 일관성이 없는 경우는, ①수치심이나 명예심의 고취를 논할 때는 남자들 사이의 동성애를 전제로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성애와 동성애의 예를 같이 들고 있다. ②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보다 더 젊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인데 반해서 알케스티스는 아드메토스보다 더 젊은데도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취급한다는 점, ③사랑받는 자인 아킬레우스의 자기희생이 사랑하는 자만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된다는 점, 그리고 오르페우스가 비겁했다는 평가는 왜곡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소포클레스는 아킬레우스는 사랑하는 자(에라스테스)로 그리고 있는 데 반해서, 호메로스는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를 연인 관계로 그리고 있지 않다.

2.2 파우사니아스의 연설(180c~185c)

(q2.2.1) 파이드로스, 우리 논의(logos)[의 방향]이 훌륭하게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내겐 보이네. 그저 이렇게 단순하게 에로스를 찬미하기로 정한 것 말이네. 에로스가 하나라면야, 그것이 훌륭한 상태겠지만, 실은 그게 하나가 아니니 말일세. 그게 하나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에로스를 찬양해야 하는지를 먼저 말하는 게 더 옳네.(180c)

(e2.2.2) 파우사니아스는 파이드로스의 연설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한다. 에로스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에로스를 찬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두 종류의 에로스(범속의 에로스와 천상의

에로스)를 구별한 다음, 어떤 에로스를 찬양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데 지침이 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따라서 파우사니아스가 찬양하는 에로스는 성인 남자와 소년 간의 동성애로서 덕을 키워주는 에로스이다. 이런 에로스는 법으로 장려해야 하지만 육체의 성욕만을 채우는 에로스는 금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동성애에 관한 여러 나라들의 법들을 살펴본다. 그 중 아테네의 법은 좋은 동성애와 나쁜 동성애를 시험해서 가려내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훌륭한 것이다.

(e2.2.3) 파우사니아스의 연설은 상당한 숨씨의 작품이다. 비록 파이드로스처럼 이중의 에로스 개념을 신화적 전승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개념이 일단 서술되었을 때, 이 구별은 유지되며 그 결과는 상당한 설명의 힘을 지니고 뒤따라 나온다. 여러 나라에서 소년과의 동성애 관련법들이 구별되는 방식, 그리고 특히 복합적인 아테네의 법의 취급은 일급 변론가의 명료함을 드러낸다. 연설에서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인상은 사랑하는 자를 만족시켜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아주 빈틈없는 한편의 변론을 대하는 느낌이다.(Bury, 1969, 26쪽)

2.2.1 좋은 에로스와 나쁜 에로스의 구별

(q2.2.1.1) 그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거나 수치스런 게 아니라 아름답게 행해지면 아름답고 수치스럽게 행해지면 수치스런 것이네. 그런데 수치스럽게라 함은 못된 사람에게 못된 방식으로 살갑게 대하는 것이요, 아름답게라 함은 쓸만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리하는 것이네. 그리고 못된 사람이란 혼보다는 오히려 육체를 사랑하는 저, 범속한 사랑을 하는 자라네. 그는 또한 확고부동(monimos)하지도 않은데, 이는 확고부동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네.(183d~e)

(e2.2.1.2) 파우사니아스는 범속의 에로스와 천상의 에로스를 구분하고 어떤 에로스를 찬양해야 할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언급한다. 어떤

행위도 그 자체로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다. 행위의 좋고 나쁨은 행해지는 방식에 달려 있다. 올바르게 행해지면 아름다운 행위가 되고 올바르지 않게 행해지면 추한 행위가 된다. 여기서 올바른 행위 방식이란 좋은 목적을 지향하는 행위 방식이다. 즉 행위의 도덕성은 그것이 지향하는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이다. 파우사니아스는 이 원칙을 음주나 노래 등 행위 일반에 적용한다.(이것은 『국가』331c~d에서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돌려주는 행위가 올바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와 비교해 봄직하다.) 좋은 에로스와 나쁜 에로스의 구별도 이 원칙에 따른다. 파우사니아스가 찬양하는 좋은 에로스의 목적은 덕이다. 좋은 에로스는 덕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나쁜 에로스와 구별되며 에로스적 행위들 자체에서는 차이가 없다. 에로스와 관련된 행위라면 온갖 비굴하고 천박한 구애 행각들(184c), 심지어는 기만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도 덕을 위한 것이라면 용인되고 칭찬받는다.(185a~b) 그래서 좋은 에로스인지 나쁜 에로스인지는 시간을 두고 이모저모 그것이 추구하는 바의 목적을 시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파이드로스는 동성애를 시험하는 장치를 지닌 아테네의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184ab)

2.2.1.1 범속의 에로스와 천상의 에로스

(q2.2.1.1.1) 그런데 범속의 아프로디테에 속하는 에로스는 참으로 범속해서 닥치는 대로 무엇이건 상관없이 해내려 하네(exergazetai). 그리고 이게 바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로스)이지.(181b)

(q2.2.1.1.2) 반면에 다른 한 에로스는 우선 여성을 나눠 갖지 않고 남성만 나눠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게 바로 소년들에 대한 사랑이지.) 또 더 나이 들었기에 방자(放恣)함(hybris)이라곤 조금도 안 가진 천상의 아프로디테에 속하는 에로스라네.(181c)

(e2.2.1.1.3) 에로스가 없는 아프로디테는 없다.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므로 에로스도 둘일 수밖에 없다. 더 나이 들고 어머니가 없는 우라노스의 딸 천상의(Ourania) 아프로디테가 있고, 나이가

훨씬 짧고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인 범속의(Pandēmos) 아프로디테가 있다. 아프로디테와 함께 일하는 에로스 역시 천상의 에로스와 범속의 에로스로 각각 나누어 불러야 한다. 이 두 종류의 에로스는 추구하는 목적에서 구별되며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들 자체에서는 차이가 없다. 범속의 에로스가 추구하는 목표는 순전히 육체적인 것이다. 성욕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며 덕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범속의 에로스는 남성과 여성에 모두 관여하는 여신에게서 출생했기 때문이다.) 천상의 에로스도 육체적이지만, 덕과 훌륭한 성품을 지향한다. 그래서 이 에로스는 이성적이며 훌륭한 인품을 키워나갈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에게 가능하며, 구애 상대도 그에 걸맞게 여성은 피하고 건강하고 지성을 갖춘 자를 찾는다. 소년과의 동성애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범속의 에로스는 육체만을 추구하므로 생각 없는 단순한 어린애를 잡아서 욕구만 채우고 내버린다. “육체의 꽃” (183e)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천상의 에로스는 지성을 갖추기 시작한 소년을 사랑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다.

2.2.1.2 동성애

(e2.2.1.2.1) 남성 간의 동성애는 『향연』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다. 첫 번째인 파이드로스의 연설에서부터 나왔고 파우사니아스의 연설에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후의 각 연설에서도 배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동성애의 강조는 현대인들의 눈에는 낯선 감이 없지 않지만 여기에는 고대 헬라스 문화의 특징적인 측면이 있다.

(e2.2.1.2.1) 고대 헬라스 문화에서 남성의 성적인 욕구가 여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로도 기우는 경향이 있었다는 가정은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아르카이크 시기(기원전 7~6세기)와 고전기(기원전 5~4세기)에 성인 남자와 소년(사춘기에서 수염이 적당히 나는 나이까지의 십대 소년) 또는 짧은 남자 사이의 성적인 관계는 이런 경향의 한 단편이다. 이 관계는 보통 비대칭적인 관계였다. 나이든 쪽(에라스테스)이 주도권

을 쥐고 성적 쾌락을 얻는다. 젊은이(파이디카 또는 에로메노스)는 나이든 쪽의 친분(philia)과 후원을 얻는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간의 분명한 구별, 그리고 ‘능동적인 성 역할과 수동적인 성 역할’ 간의 구별은 성에 관한 헬라스적 사고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 관계는 한시적인 것이었으며 한 사람이 이성애와 동성애를 함께 하는 경향이 보다 일반적이었다. 사랑하는 쪽은 여성과 결혼한 기혼자 일 수도 있고, (소년 애인처럼)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다. 『향연』에서(193b) 파우사니아스와 아가툰의 관계처럼 평생 지속되는 배타적인 남성 커플은 예외적이다.(C. Gill, 1999, 13~14쪽)

2.2.1.2.1 동성애의 사회적 배경

(e2.2.1.2.1.1) 현대와는 달리 고전기 아테네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혼과 그에 따른 결혼은 낭만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남자들과 엄격하게 분리된 생활을 해온 소녀들은 어린 나이에(14세 정도에) 결혼을 했으며, 결혼 생활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리는 엄격하게 유지되었고, 활동 공간 역시 나누어져 있었다. 가사를 돌보고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여자들의 일이었고 집 밖으로 나갈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 연유로 고전기 헬라스에서 ‘낭만적 사랑’은 자유인 신분의 성인 남자들과 정부(情婦)들 간에, 또는 그들의 남자 상대자들 간에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주로 이루어졌다. 시민 신분의 남자들 사이의 동성애, 특히 나이든 남자와 젊은 남자 사이의 동성애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말하자면 ‘낭만적인’ 성의 고급 영역이었다.(C. Gill, 1999, 14쪽)

(e2.2.1.2.1.2) 아테네인의 생활에는 남성 시민들 간의 성애를 조장하는 특별한 특징이 있다. 『향연』이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준다. 고전기 아테네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헬라스에서, 운동경기, 전투, 정치, 철학, 수사술과 같은 높은 신분의 활동들은 자유인 신분의 남성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다. 여성 특유의 활동들이 지니는 가치가 때때로 인

정되기는 했지만, ‘덕’과 ‘행복’에 대한 헬라스적인 개념은 남성들의 이러한 고급 활동들에 집중되었다. 이것은 그런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 간의 성애적 관계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향연』에서 일부 연설들은 성애와 ‘덕’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덕의 유형은 이런 활동들과 관련되어 있다. 『향연』은 우리가 ‘교육적 성애 관계’라 부를 수 있는 동성애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나이든 남자와 젊은 소년 간의 성애 관계이다. 이 관계는 나이든 남자가 젊은 남자를 주도하여 덕을 가르친다. 파우사니아스의 연설은 이런 관계의 유형을 사랑의 이상적 형태로 제시한다. 소크라테스의 연설에서 디오티마는 이런 관계의 변형된 형태(성적인 것은 배제한 철학적인 형태)를 이상화한다. 이것은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묘사되는 지적인 귀족 집단에서 중요한 사회적 성적인 경향이었던 것 같다.(C. Gill, 1999, 15쪽)

2.2.1.2.2 여러 나라의 동성애 관련 법(관습)들

(q2.2.1.2.2.1) 실은 소년들(paides)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법(nomos)이 또한 있어야 하네. [결과가] 불분명한 일에 많은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으려면 말이네. 소년들이 [자라서] 이르게 될 끝(telos)이 어느 쪽일지, 즉 그들이 혼이나 육체와 관련해서 나쁨과 홀륭함(aretē) 가운데 결국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가 불분명하거든.(181e)

(e2.2.1.2.2.2) 소크라테스는 범속의 에로스가 추구하는 방식의 동성애를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범속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비난거리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나라들의 법들을 살펴본다. 아테네와 라케다이모니아를 제외한 모든 헬라스 나라들의 법은 단순하다. ①엘리스와 보이오티아, 그리고 사람들이 말솜씨가 없는 곳에서는 소년 사랑(paiderasteia)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②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오니아와 다른 여러 곳에서는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된다. 그것은 지적인 활동이나 체육 활동과 더불어 우정과 강한 연대감을 심어 주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롭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처럼 소년 사랑이 수치스런 일로 간주되는 곳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의 탐욕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비겁함으로 인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인 반면에, 단순히 아름다운 일로 간주된 곳에서는 사람들의 영혼이 계을러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다.

2.2.1.2.2.1 아테네의 법(관습)

(q2.2.1.2.2.1.1) 우리 법(관습)은 잘, 그리고 훌륭하게 시험(basaniein)하려 한다네. 어떤 자들에게는 살갑게 대하고, 다른 어떤 자들은 피하라고 말일세. 그러니까 바로 이 때문에 그것은 어떤 자들에게는 쫓아가라고, 다른 어떤 자들에게는 피하라고 권하네. 사랑하는 자가 둘 중 어느 쪽에 속하고 사랑받는 자가 또 어느 쪽에 속하는지 [매번] 경쟁을 붙여 놓고 (agōnothetein) 시험하면서 말일세. 바로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첫째, 빨리 잡히는 것이 수치스런 일로 간주되는데, 이는 시간이 사이에 끼어들어 오게 하기 위해서지. 시간이야말로 많은 것들을 훌륭하게 시험한다고 생각되니까 말이네.(184a)

(e2.2.1.2.2.1.2) 아테네의 법은 복잡하다. 사람들은 출생 신분이 귀하고 훌륭한 소년을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좋게 여기고 소년 애인을 가진 자를 특별히 격려한다. 그리고 법은 소년 애인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애타게 간구하고 맹세하고 종노릇 하는 등의 행위들을 하더라도 비난하지 않고 허용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나라에서는 소년과의 동성애가 아름다운 일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식이 동성애를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소년의 친구나 동료들이 그런 것을 보면 비난을 하며. 어른들도 그런 비난을 막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소년과의 동성애가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중적인 상황은 에로스의 이중성, 즉 좋은 에로스와 나쁜 에로스가 혼재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인바, 아테네의 법은 이것을 시험하여 구별하고자 한다.

2.2.1.2.3 좋은 에로스와 동성애

(q2.2.1.2.3.1) 따라서 이 두 법이, 즉 소년 사랑(paiderastia)에 관한 법과 지혜 사랑(philosophia) 및 다른 덕에 관한 법이 같은 곳에서 함께 만나야 하네. 사랑하는 자에게 소년 애인이 살갑게 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일이 일어나려면 말일세. 사랑하는 자와 소년 애인이 각자가 [자기] 법을 가지고 (즉 전자는 살갑게 응하는 소년 애인에게 어떤 봉사를 하든(hypéretein) 자기가 봉사하는 게 정당할 수 있다는 법을, 그리고 후자는 자기를 지혜롭고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자에게 어떤 봉사를 하든(hypourgein) 자기가 봉사하는 게 정당할 수 있다는 법을 가지고) 같은 곳으로 가게 될 때, 그리고 전자는 사리분별(phronésis) 및 다른 덕에 있어서 기여할 능력이 있고 후자는 교육 및 다른 지혜를 얻어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이 때, 즉 이 법들이 같은 곳으로 가게 될 때, 다른 어느 곳에서도 아니고 바로 그 곳에서만, 소년 애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살갑게 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184d~e)

(e2.2.1.2.3.2) 범속한 사랑은 확고부동하지 않은 것(육체)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나쁜 에로스이다. 그것은 ‘육체의 꽃’이 시들자마자 날아가 버린다. 반면에 좋은 성품(ethos)을 사랑하는 에로스는 일생동안 확고부동한 상태를 유지한다. 아테네의 법은 이처럼 좋은 에로스와 나쁜 에로스를 구별하기 위해 시간에 의해서 그리고 돈과 정치권력에 의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어떤 동기에서 사랑을 하는지) 시험을 한다. 덕이 에로스의 동기가 될 때만이 사랑하는 자의 봉사나 종 노릇 행위가, 그리고 사랑받는 자의 살가운 응대가, 심지어는 기만당하는 일까지도 아름다운 것이 된다. 따라서 소년과의 동성애 관한 법은 덕에 관한 법과 일치해야 한다. 천상의 에로스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덕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이끌어간다.

(e2.2.1.2.3.3) 파우사니아스는 동성애 관계를 상호관계로 표현한다. 에로메노스인 소년은 에라스테스인 성인 남자에게 성적인 만족을 주는 대신 윤리적 교육을 얻는다. 교육적인 동성애 관계가 충분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소년과 어른이 모두 교육적인 노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파우사니아스는 사랑하는 자는 소년의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

는 성적인 만족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런 점은 소크라테스의 연설에서 디오티마가 옹호하는 교육적 동성애와 다른 모습이다. 거기서는 육체적인 성애는 완전히 배제되며 사랑하는 자는 소년의 덕을 향상시키는 데만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2.3 첫 번째 막간 : 아리스토파네스의 딸꾹질(185c~e)

(q2.3.1) 에檄시마코스, 자네는 내 딸꾹질을 멈추게 해 주든가 아니면 내가 [딸꾹질을] 멈출 때까지 내 대신 연설을 하든가 해야 마땅하네.”

“아니, 그 둘 다 해 주겠네. 자네 차례에 내가 말을 하고 자네는 딸꾹질을 멈추면 내 차례에 하게나. 그리고 내가 연설하는 동안 자네가 오랫동안 숨을 멈추고 있으면 자네의 그 딸꾹질이 혹시 멈추게 될 수도 있겠네. 안 멈추면 물을 입에 물고 울걱거려 보게. 하지만 과연 [그 딸꾹질이] 대단히 센 놈이다 싶으면, 코를 간질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을 구해 가지고 재채기를 해 보게. 이걸 한 두 번 하면 대단히 센 놈이라 해도 멈춰질 걸세.(185d~e)

(e2.3.2) 아폴로도로스는 이제 파우사니아스의 연설의 소피스트적인 같은 운율로 말하기(반복적인 리듬, 깨끗하게 균형 잡힌 대구들, 그리고 리듬과 두운을 포함한 유사음의 빈번한 사용)에 대해 유머러스하게 논평을 한다. 이것은 파우사니아스의 연설을 아가톤의 연설과 뮤어 준다. 양자의 수사는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198c)의 방식이다. 다음 연설 차례는 아리스토파네스였으나 딸꾹질이 나서 연설을 할 수 없었다. 의사인 에檄시마코스가 몇 가지 딸꾹질 치유책을 알려 주고 대신 연설을 했다.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딸꾹질인 아리스토파네스의 딸꾹질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극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희극적인 기분 전환을 제공하며, 아리스토파네스의 음주 습관과 에檄시마코스의 의술 지식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아울러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을 연기함에 의해 기대감과 극적인 긴장을 증가시킴으로써 그의 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4 에뤽시마코스의 연설(185e~188e)

(e2.4.1) 대화편 전반에 걸쳐서 에뤽시마코스는 의사로서, 그리고 향연의 운영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의 역할에서, 자신의 전문지식을 다소 뽐내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의 연설도 이런 특징을 반영한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이런 점을 풍자적으로 논평한다.(189a~c) 그는 딸꾹질의 치유를 위해 에뤽시마코스의 재채기 처방의 성공은 신체의 ‘잘 질서 잡힌’ 특징에 대한 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의 연설은 자신의 전문 지식에 경도된 나머지 주제에 그것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플라톤은 그 당시 의술 전문가들의 지적인 자만심을 풍자하기 위해서 에뤽시마코스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2.4.1 우주적 원리로서의 에로스

(q2.4.1.1) 에로스가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은 그가 멋지게 구분한 것으로 나는 생각하네. 하지만 에로스가 사람들의 혼에만, 그리고 아름다운 자들(kaloi)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른 것들 속에도 (즉 모든 동물들의 육체에도, 땅에서 자라나는 것들에도, 즉 말하자면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우리 기술인 의술로부터 깨달았다고 생각하네.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랄 만한 신인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에, 즉 인간적인 사물들과 신적인 사물들에 [세력을] 뻗치고 있는지를 말일세.(186a~b)

(e2.4.1.2) 에뤽시마코스는 파우사니아스가 에로스를 두 부류(좋은 에로스와 나쁜 에로스)로 나눈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는 파우사니아스가 그 구별을 충분히 밀고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파우사니아스는 이중적 에로스는 아름다운 사람들 향한 혼의 충동(욕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많은 다른 것들을 향한 그리고 다른 것들 속에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몸속에) 있다. 에뤽시마코스는 에로스를 자연 전체에 확장한다. 에로스는 의술, 체육술, 농

사 기술, 음악(시가), 천문학 그리고 예언술 등 다양한 기술들의 토대가 되는 우주적 원리이다. 각각의 기술들은 해당 분야에서 ‘에로스가 하는 일들’ (erōtika)을 상대로 좋은 에로스와 나쁜 에로스를 분별해서 거기에 맞게 좋은 에로스는 충족시키고 조장하며, 나쁜 에로스는 규제하거나 좋은 에로스로 대체하는 식의 처방을 할 줄 아는 지식이다. 의술은 비움과 채움에 관련된 육체의 ‘에로스적인 일들’ (erōtika)에 대해서, 음악(시가)은 화음과 리듬에 관련된 에로스적인 일들에 대해서, 천문학은 별들의 운동과 계절들에 관련된 에로스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술은 경건과 불경에 관련된 에로스적인 일들에 대해서 처방을 내릴 줄 아는 지식이다. 에로스는 인간을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 들어 있는 것이므로 사람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행동의 원인이 되는 욕망과 같은 것이기도 하고, 신체의 생리 현상이나 음악의 화음, 계절의 변화 등과 관련해서는 그런 현상들을 추동하는 어떤 힘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이 에로스는 엠페도클레스의 ‘사랑’과 ‘불화’ 와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2.4.1.1 의술의 에로스

(q2.4.1.1.1) 방금 전에 파우사니아스도 말했듯이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자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것(charizesthai)은 아름답지만 제멋대로인 자들(akolastoi)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라네. 바로 그처럼 육체들 자체에 있어서도 각 육체에 속하는 훌륭하고 건강한 것들에게 잘 대해 주는 것(charizesthai)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의술(to iatrikon)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나쁘고 병적인 것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고 또 누군가가 기술에 능한 자(technikos)가 되려면 그것들 마음에 들지 않게 대해 주어야(acharistein) 한다네.(186b~c)

(e2.4.1.1.2) 에뢰시마코스는 육체가 이중의 에로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서로 다른 것임을 것을 짧게 논증한다. ①육체의 건강함과 병듦

은 서로 다른 것이다. ②서로 닮지 않은 것들은 서로 닮지 않은 대상을 사랑한다. 따라서 ③건강한 육체의 사랑과 병든 육체의 사랑은 다르다. 그런 다음 두 에로스에 대한 파우사니아스의 취급 방식을 의술에 그대로 적용한다. 즉 소년 애인이 절제 있는 구애자들은 만족시켜 주고 방종한 구애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듯이, 채움과 비움의 측면에서 신체의 좋은 에로스는 만족시켜 주고, 나쁜 에로스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지식이 의술이라고 규정한다.(‘채움과 비움’ 이란 ‘비움은 가득참을 치유하고 채움은 비워짐을 치유하며, 휴식은 노고를 치유한다.’라는 대립적인 것에 의한 치유의 원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육체의 에로스적인 일들에 대한 의술의 취급 방식을 있어야 할 곳에 에로스를 넣어주거나 한 에로스를 다른 에로스로 대체해 주는 것으로 묘사한다. 좋은 에로스와 나쁜 에로스의 구별에 따른다면 이것은 좋은 에로스를 넣어주거나 나쁜 에로스를 좋은 에로스로 대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좋은 에로스는 ‘건강’과 관련이 있고, 나쁜 에로스는 질병과 관련이 있다.) 나아가 에뢰시마코스는 좋은 에로스를 넣어주거나 나쁜 에로스를 좋은 에로스로 대체한다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요소들(뜨거운 것-차가운 것, 젖은 것-마른 것, 쓴 것-단 것 등) 간에 조화 내지는 일치(homonoia)를 부여하는 것으로 표현한다.(186e)

2.4.1.2 시가술의 에로스

(q2.4.1.2.1) [...] 확실히 고음과 저음이 적어도 아직 불화하고 있을 때는 그것들로부터 조화가 있게 될 수는 없거든. 조화(harmonia)는 화음(sympōnia)이요, 화음은 일종의 일치(homologia)이기 때문이지. [...] 바로 리듬의 경우도 꼭 그렇듯이 말이네. 빠른 템포와 느린 템포가 이전에는 불화했는데 나중에 일치되어 그것들로부터 리듬이 생겨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들 모두에 일치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앞의 경우에는 의술이었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시가 기술이네. 서로간의 사랑과 한 마음을 만들어 넣어 줌으로써 그렇게 한다네. 그리고 시가 기술(mousike)은 이번에는 조화나 리듬과 관련하여(peri) 에로스(사랑)가 하는 일들(erōtika)에 대한 암(epistēmē)이네.(187b~c)

(e2.4.1.2.2) 에뢰시마코스는 시가술(mousike)을 ‘화음과 리듬에 관여하는 에로스적인 일들에 대한 지식’으로 규정한다. 시가술은 불화 상태의 음들(고음과 저음)을 일치시켜 조화를 이루어낸다. 화음(symphonia)이란 일종의 조화(harmonia)이고 일치(homologia)이다. 리듬의 경우도 마찬 가지다. 빠른 템포와 느린 템포의 일치로부터 리듬이 생겨나며 이 일치를 넣어주는 것이 시가술이다.

(e2.4.1.2.3) 화음과 리듬의 구성(systasis) 자체에는 에로스의 이중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조화와 일치는 좋은 에로스에만 해당되는 작용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곡(melopia, 가락[mele]과 운율[metra]을 만드는 일)이나 만든 곡의 활용에서는 이중성이 드러나고(훌륭한 장인[demiourgos]과 나쁜 장인의 구별이 있다.), 그래서 의술이 육체의 건강한 요소와 병적인 요소를 구별하여 처방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여기서도 적용된다. 질서 있는 자들(kosmioi)의 에로스(천상의 에로스이자 천상의 무사여신에 속한 에로스)는 지켜주어야 하는 반면에, 폴립니아 무사(여러 송가들의 무사) 여신의 에로스, 즉 범속의 에로스를 적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주는 쾌락은 누리게 하되 방탕에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1.3 천문학의 에로스

(e2.4.1.3.1) 기상학과 천문학의 영역에서도 두 종류의 에로스가 작용한다. 계절을 이루는 요소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마른 것과 젖은 것이 질서 있는 에로스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적절하게 섞일 때는 사람과 동물, 식물에게 번성과 건강을 주고 해를 끼치지 않지만, 방자한 에로스가 계절들을 지배할 때는 크게 해를 끼친다. 그런 상황에서는 역병과 질병들이 생기기 쉽다. 그런 에로스적인 일들의 상호 침해와 무질서로부터 서리, 우박, 녹병이 생기는데, 별의 운동과 한 해의 계절들에 관여하는 이와 같은 에로스적인 일들에 대한 앎을 천문학이라 부른다.

2.4.1.4 예언술의 에로스

(e2.4.1.4.1) 종교의 영역에서, 제사와 예언술(mantike)이 하는 일은 에로스를 지키고 치유하는 일이다. 질서 있는 에로스에게 존경과 영예를 바치지 않고 방자한 에로스에게 그렇게 할 경우에 부모에 대해서든 신에 대해서든 불경건(asebeia)이 곧잘 생기는데, 이런 일을 살펴서 치유하는 일이 예언술이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삶에서 에로스의 작용이 어떻게 올바른 행위와 경건한 행위를 유발하는지를 알아서 신과 인간의 친애를 도모하는 것이 예언술이다.

2.5 두 번째 막간 (189a~c)

(e2.5.1) 에뢰시마코스는 연설을 마치며 아리스토파네스에게 자신의 연설에서 본의 아니게 빠진 것이 있으면 보충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찬양 연설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한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재채기 요법으로 딸꾹질이 멎은 것을 두고 육체의 질서 있는 부분이 재채기 같은 소음에 의해 치료된다는 것이 놀랍다는 말로 에뢰시마코스의 연설을 은근히 비꼰다. 에뢰시마코스는 아리스토파네스를 나무라면서 그의 연설이 어떨지 지켜보겠다고 벼르고, 아리스토파네스는 자신의 연설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연설을 시작한다.

2.6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 (189a~193d)

(e2.6.1) 아리스토파네스는 에뢰시마코스의 우주론적(또는 자연주의적) 에로스관을 교정한다. 그는 에로스를 세계의 진행에 작용하는 이중의 우

주적 힘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치유하는 단일한 힘으로 간주한다. 이 희극 시인은 인간의 본성과 그 조건을 다루는 신화에 의지해서 자신의 에로스관을 펼쳐 보인다.

(e2.6.2) 이 신화는 ①인간의 성적 욕망의 근원을 설명한다.(191d) 사랑이란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과 하나가 되어 완전해 지려는 욕망이라는 것, 그리고 ②신화는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우리의 성적 선호(성애의 여러 행태들)를 우리가 쪼개져 나온 처음 결합체의 유형으로 설명한다.(191d~192b) 또한 ③신화는 성적 사랑에 의해 야기되는 감정의 강렬함을 설명한다.(192c) 그리고 ④자신의 잃어버린 반쪽과 하나가 되려는 욕망으로서의 사랑이 함축하는 바는 사랑은 개별자들로 향한다는 것이다. 만약 에로스가 하나가 되려는 욕망이라면, 이 욕망을 충족시켜줄 다른 반쪽은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또 다른 사람의 (그의 성품이나 소양과 대비되는) 고유한 개별성에 대한 반응인 것이다. 개별성을 지향하는 에로스는 소크라테스의 연설에서 두드러지게 결여되어 있는 특징이다.

(e2.6.3) ⑤유일함과 하나가 되려는 욕망은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같이 살기(‘공유하는 삶’)를 열망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192e)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고, 그들이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에게서 얻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가 되려는 욕망은 사랑받는 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주는 본질적인 즐거움과 직접 연결된다. 사랑받는 자의 유일함과 사랑받는 자와 함께 있음의 즐거움은 에로스가 성교 행위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한다.(192c~d) 여기서 아리스토파네스는 특정인(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성적 욕망을 배타적이며 평생 지속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헬라스적 사고에서 성애는 배타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e2.6.4) 아리스토파네스의 연설은 에로스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만 적용하며 남성 동성애에 더 높은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파우사니아스의 연설과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아리스토파네스의 에로스는 두 종류로 나뉘지

않는다. 에로스는 이성애든 동성애든 모두 상실한 본성의 온전함을 회복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의 구별이 없다. 좋은 에로스와 나쁜 에로스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파이드로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차이점은 분명하다. 파이드로스의 에로스가 가져다 주는 좋은 것은 덕(용기)이지만, 아리스토파네스의 경우는 하나가 되는 일체감 내지는 “만족감”이다.(191c) 덕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파우사니아스의 지적처럼 덕을 유발하는 에로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에로스가 있다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좋고 나쁨의 구별은 분명하다. (따라서 파우사니아스의 교정은 정당하다.) 하지만 ‘만족감’이라는 심리적 차원에서는 좋고 나쁨의 구별은 무의미하다. 한편 아리스토파네스가 남성 동성애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은 그것이 남자다움의 덕(용기)을 가진 자들의 에로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성애가 남자다움의 덕을 고취시켜 주기 때문에 (파이드로스나 파우사니아스의 경우)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본래 남자다움의 덕을 가진 자들이 하는 에로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192a)

2.6.1 인간본성의 치유자인 에로스

2.6.1.1 인간의 본성 : 신화

(e2.6.1.1.1) 인간은 남성과 여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성을 함께 갖춘 남녀추니,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다.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의 부류로서 모습에서나 이름에서나 양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성과 여성은 함께 갖추고 있었다.(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이름만 비난하는데 쓰이고 있을 뿐이다.) 각 사람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둑근 구형이었다. 원형을 이루는 등과 엎구리들, 네 개의 손과 네 개의 발, 원통형 목에 완전히 닮은 두개의 얼굴이 반대로 놓여 있고, 그 위에 하나의 머리가 붙어 있었다. 이들의 모습과 결음걸이가 구형이었던 것은 부모들을 닮았기 때문이다. 남성은 태양의 자식이고 여성은 지구의 자식이며, 남녀추니는 달의 자식이다. 달은 두 행성에 모두 관여한다.

2.6.1.1.1.1 반으로 잘린 인간

(e2.6.1.1.1.1) 이들은 대단한 힘과 능력 그리고 방자함을 지녔기에 신들에게 대들었다. 그러나 신들은 인간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았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는 없었다. 제우스는 생각을 짜내어 인간들을 살아 있게 하면서도 방종을 멈추게 할 방도를 마련했는데, 그것은 인간을 반으로 갈라서 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숫자를 증대시켜 신들에게 더 쓸모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우스는 인간을 반으로 잘라 아폴론에게 주어 얼굴과 반쪽 목을 잘린 쪽으로 돌려놓게 하고 몸의 잘린 곳을 치료해 주도록 했다.

2.6.1.1.2.1 자신의 반쪽과 하나가 되려는 욕망

(e2.6.1.1.2.1) 반으로 잘린 인간은 제각기 자신의 다른 반쪽을 그리워하며 만나서 한몸이 되기를 욕망하다가 삶의 의욕을 잃고 굶어 죽거나 나태해져서 죽어갔다. 반쪽 중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남게 되었을 때, 다른 상대방을 찾아 결합하려 들었는데, 상대가 순전한 여성의 반쪽이든 순전한 남성의 반쪽이든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좋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인간은 멸망해 갔다. 제우스는 이를 가엾게 여겨 다른 방안을 간구했다. 제우스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앞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생식 기관을 이용해서 남성이 여성의 생식기 속에 삽입해서 자식을 낳게 하였다. (전에는 매미처럼 땅 속에서 생식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처럼 생식 방법을 바꾸어 놓은 목적은 남성과 여성이 만날 경우에는 아이를 낳아서 종을 재생산하도록 하고, 남성과 남성이 만났을 때는 결합하는 것 자체를 중단하고, 일상의 삶을 돌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6.1.1.3.1 욕망(에로스)의 행태들

(e2.6.1.1.3.1.) ①자웅양성으로 불렸던 존재가 나뉘어 남자 혹은 여자가 된 사람들 중에 색을 밝히는 자들이 많다. 순전히 여성이었던 존재

가 나뉘어 반편이 된 여성들로부터 레즈비언이 생겨난다. ②순전히 남성이었던 존재가 나뉘어 반편이 된 남자들로부터는 소년 애인(paidika)이 생겨난다. 이들은 가장 남성다운 자들인지라 청소년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자들이다. 이들의 동성애는 불순한 것이 아니다. 자기 확신과 용기, 남성다움 때문에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들이 성장해서 국가에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이들이 성인이 되면 소년을 사랑하게 된다. 결혼과 자식 낳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2.6.1.2 본성 회복에 대한 욕망으로서의 에로스

(q2.6.1.2.1) 오래 전부터 자기가 바라던 게 바로 그건데, 그걸 들은 거라고 말일세. 즉 자기가 사랑하는 자와 한 데 모여 융합되어 둘이던 게 하나가 되는 것 말이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네. 우리의 옛 본성이 [이제 까지 말한] 바로 이런 것이었고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었다는 것 말일세. 그래서 그 온전함에 대한 욕망과 추구에 붙여진 이름이 사랑(에로스)이지.(192e)

(e2.6.1.2.2)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간에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만났을 때는 사랑의 결속이 가장 강해서 서로 떨어지려 하지 않고 평생을 같이 살아간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인 결합의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신의 본성을 되찾아 온전해지려는 갈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들 간의 사랑의 본질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옛 본성을 결합시켜 둘을 하나로 만듦으로써 인간 본성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였다가 둘로 나뉜 반편의 존재이기에 다른 반편을 끊임없이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한 서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각자는 옛날부터 원해왔던 것, 즉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하고 합쳐져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 상태야말로 우리들의 원초적 본성은 하나였고 한 몸이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고

자 하는 욕망과 노력을 사랑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2.6.1.3 본성의 회복과 동성애

(q2.6.1.3.1) 우리 [인간] 종족은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서 각자가 자기 소년 애인을 만나 옛 본성으로 돌아가게 될 때 행복하게 될 거라고 말 일세. 이것이 최선이라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이것과 가장 가까운 것이 또한 최선일 수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자기 마음에 맞는 본성을 갖춘 소년 애인을 만나는 일이네. 바로 그것의 원인 노릇하는 신을 찬송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에로스를 찬송한다면 올바른 일이 될 것이네.(193c)

(e2.6.1.3.2) 옛날에 하나였는데 방자함으로 인하여 신에 의해서 분할된 것이므로 그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신들에게 조신하게 굽어야 한다. 우리는 에로스를 안내자 내지는 지도자로 삼아 좋은 일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한 행동을 권고해야 한다. 에로스를 거역해서 신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말로 에로스와 친구가 되어 자신과 다름없는 소년 애인을 만나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의 소년 애인을 만나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현실에서 최선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본성을 지닌 소년 애인을 만나는 것이다.

2.7 세 번째 막간 : 소크라테스와 아가톤(193d~194e)

(e2.7.1) 아리스토파네스는 연설을 마치며 아가톤과 소크라테스가 아직 연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에뤼시마코스에게 일깨워 준다. 에뤼시마코스는 소크라테스와 아가톤이 에로스에 관한 일의 전문가들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한다. 소크라테스는 짐짓 난색을 표하며 자신의 연설 능력을 깎아 내린다. 지금까지 돌아가며 진행된 연설이 누가 잘하나 겨루어 보는 격이 되어 버렸는데, 아가톤이 더 훌륭하게 연설을 하고 나면 자신이 처할 상황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아가톤은 소크라테스가 관중들이 그의

연설에 큰 기대를 갖는다는 걸 의식하게 하여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반박 한다.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조금도 압도당하지 않던 용기 와 배포가진 자가 소수의 사람 앞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되받는다. 아가تون은 무지한 대중들보다 지각 있는 소수가 더 무서운 법이라고 날카롭게 다시 응수한다. 소크라테스는 그렇다면 무지한 대중 들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짓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냐며 따지고 나선다. 여기서 파이드로스가 개입한다. 두 사람이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하더라도 먼저 에로스에게 찬양을 지불한 후에 하라는 요구에 설전은 중단되고 아가تون이 연설을 시작한다.

(e2.7.2) 소크라테스와 아가تون의 설전은 향연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의 두 사람 간의 지혜의 우열 다툼을 상기시킨다. 거기서 아가تون은 그것 의 판결을 디오뉘소스에게 맡기자고 제안했었다.(175d~e) 그리고 땀꾹질 처방에서부터 형성된 아리스토파네스와 에뤽시마코스 간의 긴장 관계도 흥미롭다. 알렌(R.E. Allen)은 이들의 긴장 관계를 『향연』 전반의 주제 적인 긴장 관계(디오뉘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 간의 긴장 관계)의 암시적인 표출로 이해한다.(1991, 37쪽) 아리스토파네스의 모든 관심은 디오뉘소스와 아프로디테였다.(177e) 에뤽시마코스는 술이 신체에 미치 는 영향을 알고 있는 의사로서 절제를 권고했고, 담론을 위해서 피리 부는 소녀들을 내 보냈었다.

(e2.7.3) 『향연』에서 디오뉘소스와 로고스 간의 주제적 긴장은 아마 도 디오뉘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 맹목적이며 야만적인 힘과 적도 에 맞는 조화로운 자체력 사이를 구별하는 토대가 되는 것 같다. 이 구별 은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제시했다. 소크라테스(니체는 소크라테스를 에우리피데스와 연결시키고 로고스의 화신으로 간주한다.)는 거기서 신들 인 아폴론, 디오뉘소스와 거의 같은 수준의 다이몬으로 간주된다. 그는 아폴론적인 것을 디오뉘소스적인 것에서 떼어내며 헬라스 비극을 파괴하 는 파괴적 비평가이다. [...] 이것은 『향연』의 주제적 긴장에 대한 통찰력 있는 평가이다. 비극을 대하는 소크라테스의 태도에 대한 그의 평가는 정

화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호메로스를 제외하면 에우리피데스는 소크라테스가 『향연』에서 인용하는 유일한 시인이라는 점,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 자신은 제우스의 벌을 가져다주는 징벌자로서의 아폴론을 대신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카우프만에 따르면 짧은 니체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호주머니에 『향연』의 복사본을 가지고 다녔다. 그것은 그가 애호하는 책이었다. 그러나 물론 그는 그것의 의미를 위에서 아래로 돌려놓았으며 왜곡시켰다.” (알렌, 1991, 37쪽)

2.8 아가تون의 연설(194e~197e)

(e2.8.1) 아가تون의 연설도 파이드로스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찬양 연설의 모범을 충실히 따른다. 그는 먼저 에로스의 기원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에로스의 훌륭한 성질들, 특히 아름다움을 언급하며, 그 다음에 에로스의 덕들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에로스가 인간에게 주는 이득들을 언급한다. 에뤽시마코스의 연설이 의술에 경도된 의사의 직업적 특징을 보였다면 아가تون의 연설은 비극 시인으로서의 직업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 연설이다. 에뤽시마코스가 자신의 직업인 의술에 존경을 표한 것처럼 아가تون도 자신의 기술에 존경을 표한다.(196d) 그의 표현 기교는 다분히 고르기아스적이다. 그것의 특징은 같은 운율로 말하기, 짧은 대구(對句)들, 두운(頭韻), 그리고 압운(押韻)이다. 데이斯顿(J. D. Denniston)에 따르면 고르기아스는 이런 수사적 특징들을 지나치게 과장했는데, 그는 압운과 대구를 모두 얻기 위해 불필요한 동의어들을 덧붙였다고 한다. 초기의 산문에서 압운은 대칭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반면에, 고르기아스와 이소크라테스 그리고 고르기아스의 영향을 받은 다른 작가들은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추구했다는 것이다.(1952, 10~12쪽) 그런 만큼 아가تون의 화려하게 돋보이는 찬양의 말들은 진리와는 상관없이 에로스 신을 장식하고 청중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의도한다. 이 점은 디오티마의 연설과 대비된다. 디오티마의 연설도 수사적인 특징을 갖지만(디튀람보스) 사랑하는 자를 아름다움 자체로 이끌어간다. 아가تون의 수사술은 외관을 다루지만, 디오티마의 수사술은 실재를 다룬다. 두

연설들은 소피스트적인 교육과 철학 간의 대조를 드러낸다.

2.8.1 가장 행복한 신 에로스

(e2.8.1.1) 신들은 모두 행복한 존재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에로스가 가장 행복한 신이다. 왜냐하면 에로스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기 때문이다.

2.8.1.1 에로스의 아름다움

(e2.8.1.1.1) 에로스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①신들 중에서 가장 젊다는 데 있다. 가장 큰 증거는 에로스는 노년을 피한다는 점이다. 그는 본래 노년을 싫어하여 가까이 가지 않는다. 젊은이들과 언제나 함께 있고 그 자신이 젊다. 파이드로스는 에로스가 카오스와 가이아 다음으로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에로스는 크로노스와 이아페토스보다 더 오래된 신이라고 주장한 셈인데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는 신들 중에서 가장 젊으며 언제나 젊다. (그리고 헤시오도스와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오래 전에 신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에로스와는 상관이 없고, 아냥케와 상관이 있다. 오히려 에로스가 신들의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이후에는 우정과 평화가 있었다.)

(e2.8.1.1.2) ②에로스는 섬세하다. 호메로스는 단단하지 않고 물렁한 것 위를 걸어 다닌다는 것을 증거로 삼아 아테 여신의 섬세함을 표현했다. 에로스의 섬세함에 대해서도 같은 증거에 입각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는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 안에서 걸어 다니고 그 속에 산다. 신과 인간의 성품과 혼 속에, 그것도 아무 혼에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연한 혼에 거주한다. 그는 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으로 가장 부드러운 것들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들과 접촉한다.

(e2.8.1.1.3) ③에로스는 유동체의 형태를 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굳어 있다면, 혼 전체를 완전히 감싸며 몰래 혼 속으로 들어오고 빠

져나오지 못할 테니까. ④에로스는 균형미를 지녔다. 그 가장 큰 징표는 우아함(euschēnosynē)이다. ⑤에로스는 형색이 아름답다. 그가 꽂피는 절정기의 삶을 보내고 있음을 가리킨다. 꽂피지 않거나 시들은 육체나 혼 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짓들지 않는다.

2.8.1.2 에로스의 훌륭함

(e2.8.1.2.1) 아가تون은 네 가지 주요 덕들을 에로스에게 돌린다. ①에로스는 가장 정의롭다. 그는 신이나 인간에게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는다. ②가장 절제 있다. 그는 쾌락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쾌락도 에로스보다 더 크지 않다. ③가장 용감하다. 신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아레스를 휘어잡았다. ④가장 현명하다. a. 모든 창작에서, 특히 시가에서의 모든 창작에서. 모든 생물의 창조(poiesis)는 에로스의 기술(sophia)이다. 그 기술에 의해서 모든 생물들이 생겨나고 성장한다. b. 실용적 기술들에서. 아폴론의 궁술과 의술, 예언술은 에로스에 힘입은 바 크다. 무사 신들은 음악에서, 헤파이스토스는 야금술에서, 아테네는 직조술에서, 제우스는 신과 인간을 지배하는 기술에서 모두 에로스의 제자인 셈이다.

2.8.1.3 모든 좋은 것들의 원인인 에로스

(e2.8.1.3.1) 그것은 자신의 속성들(훌륭함과 아름다움)과 같은 것들, 즉 아름다움과 훌륭함이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장본인이다. 그는 우주적 찬탄의 대상이며, 모든 기쁨의 장본인이며, 신과 인간들의 가장 좋은 안내자이자 지도자이다. [축제, 가무단, 종교 의식의 주제자이고, 부드러운 성격을 형성하고, 선물을 베푸는 데 관대하고, 선행을 베푸는 데 우호적이며, 현자들의 명상의 대상이고, 신들의 찬양의 대상이다. 가장 훌륭한 지원자이자 원조자이고 질서의 원리이며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지휘자이다.

2.9 네 번째 막간 : 1부의 마무리(198a~199c)

(q2.9.1) 아쿠메노스의 아들이여, 아까 전부터 내가 두려워했던 게 기우(杞憂)라고 자넨 생각하나? 아가تون이 놀랄 만하게 말할 것이고 나는 막막해 하리라고 방금 전에 내가 말한 것이 예언자다운 말 아니었나?(198a)

(e2.9.2) 모든 사람들이 아가تون의 연설에 찬사를 보낸다. 소크라테스는 두려워했던 자신의 예상이 맞았음을 지적한다. 아가تون의 연설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해서 연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고르기아스’ 와 ‘고르곤’의 발음이 유사한 점을 이용해서 아가تون의 화려한 수사적 연설을 은근히 비꼰다. 그는 에로스를 찬양하자는 제안에 선불리 동의한 것을 뉘우친다. 어떤 것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은 찬양 대상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연설을 들어 보니 진실과는 상관없이 찬양 대상을 가능한 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도록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 소크라테스는 그런 종류의 찬양은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고, 대신 참석자들이 원한다면 진실을 말하는 자신 방식으로 에로스를 찬양하겠다고 말한다. 파이드로스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권하자 아가تون과 문답식 논의를 시작한다.

2.10 소크라테스의 연설(199c~212c)

(e2.10.1) 소크라테스의 연설 부분은 이 대화편에서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소크라테스는 앞 사람들이 행한 연설들을 비판하지만 (198d~e), 자신의 연설에서 이 연설들을 때때로 넘지시 언급하면서 수정하거나 교정한다. 그런 방식으로 그는 그 연설들이 사랑에 대한 진리에 접근

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음을 암시한다. 소크라테스의 연설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아가تون과의 문답식 논의, 디오티마의 가르침에 대한 보고, 그리고 ‘최고 비의’. 그러나 세 부분들은 모두 연속되는 한 논증의 일부를 구성하며, 논증의 전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e2.10.2) (1)소크라테스는 아가톤을 논박하면서 에로스는 관계적인 것이며 결핍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199c~201c) (2)디오티마는 중간적인 존재라는 범주를 도입하여 여기에 에로스를 포함시킨다. 에로스는 가사자와 불사자의 중개자이며 결핍과 풍요를 결합하는 ‘다이몬’으로 간주된다.(201e~204c) (3)디오티마는 에로스를 보다 근본적인 욕망, 즉 좋은 것 내지는 행복을 영구히 가지려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한다.(204d~206a) (4)에로스가 이 근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생산이며 그것을 통해서 불멸성(좋은 것의 영원한 소유 206b~208b)을 얻는 것이다. (5)디오티마는 자신을 불사화 하는 육체적인 방법과 정신적인 방법을 대비시키고, 후자가 목적을 성취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208c~209e) (6) ‘최고 비의’에서 디오티마는 육체적인 유형의 아름다움에서 정신적인 유형의 아름다움으로 상승하여 아름다움의 형상을 직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른바 에로스의 상승 단계를 역설한다. 이런 궁극적인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생산은 자신을 불사화 하는, 그래서 가능한 최상의 인간적 행복을 성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설파한다.(210a~212b)

2.10.1 소크라테스와 아가تون의 예비 논의(199c~201c)

(e2.10.1.1) 소크라테스는 아가تون에게 몇 가지 작은 질문을 하는 것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한다.(199b) 그리고 아가تون의 동의에 근거하여 설명을 진행한다. 소크라테스적인 문답법은 참인 것을 주장함으로써가 아니라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동의하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진행하는 데 특징이

있다. 논박(elengkos)은 문답법의 중요한 부분이며 귀류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여기서 논리의 일관성은 진리에 대한 일차적인 시험이다. 소크라테스는 아가톤을 암에 대한 거짓된 자신감에서 벗어나게 한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다.(201b) 이것은 계속되는 논의를 위한 전제를 소크라테스에게 제공한다.

2.10.1.1 아름답지 않은 에로스

(q2.10.1.1.1) 친애하는 아가تون, 우선은 그 자신을, 즉 에로스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의 일들(erga)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자네는 실로 연설을 아름답게 시작한 것으로 내게 보였네. 이 시작이 나는 무척 마음에 드네.(199c)

(e2.10.1.1.2) 소크라테스는 아가톤의 찬양 방법(에로스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을 다루는 것)을 받아들인다. 먼저 에로스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를 밝히는 논증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2.10.1.1.1 관계 개념으로서의 에로스

(q2.10.1.1.1.1) 에로스가 어떤 것의(tinos) 에로스(사랑)라고 할 만한 그런 자인가, 아니면 그 어느 것의(mēdenos) 에로스(사랑)도 아니라고 할 만한 그런 자인가?(199d)

(e2.10.1.1.2) 소크라테스는 먼저 ‘어떤 것의’ 에로스라고 할 때 어떤 것 ‘의’라는 속격(genitive)의 의미를 명료화한다. 이 속격(genitive)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뜻하지도 않고, 거꾸로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사랑을 뜻하지도 않으며 친구 간의 사랑을 뜻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속격은 기원(基源)을 뜻하는 속격의 특별한 경우도 아니다. 헬라스어에서 누구의 아무개라는 말은 관용적으로 누구의 자식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

는 ‘어떤 것의 에로스’는 에로스가 ‘아버지’나 ‘형제’와 같은 관계 개념으로서의 에로스이다. ‘아버지’나 ‘형제’라는 말은 언제나 ‘누구의’ 아버지, 또는 ‘누구의’ 형제인 한에서만 의미를 갖는데, 에로스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의’ 에로스이다. 또한 이 관계 개념은 어떤 특정한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누이가 아니라, 아버지 자체, 형제 자체이다.(199d4) 다시 말해서 아버지인 한에서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인 한에서의 모든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관계 개념으로서의 에로스는 어떤 특정한 에로스가 아니라 에로스인 한에서의 모든 에로스이다.

2.10.1.1.2 욕망으로서의 에로스

(q2.10.1.1.2.1) 그렇다면 이 자도, 그리고 욕망하고 있는 다른 모든 자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과 결에 있지 않은 것을 욕망하는 것이네. 그리고 그가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그 자신이 [아직] 아닌 것과 그가 결여하고 있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네. 욕망과 사랑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hōn) 것이네.(200e)

(e2.10.1.1.2.2)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관계 개념인 ‘어떤 것의 에로스’에서 ‘어떤 것’과 ‘에로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한다. ‘어떤 것의 에로스’라고 할 때 그 ‘어떤 것’은 에로스가 욕망하는 대상으로서의 어떤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욕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에로스가 ‘어떤 것’을 욕망한다고 할 때, 에로스는 그 ‘어떤 것’을 아직 갖지 않은 상태일 수밖에 없다. 개중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욕망한다고(또는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도 계속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욕망하는 자는 그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욕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의 에로스’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랑’인 것이다.

2.10.1.1.3 아름다운 것을 결여한 에로스

(e2.10.1.1.3.1) 파이드로스는 사랑하는 자를 아름다운 것(kalos)으로 묘사했다. 오늘날 남겨져 있는 항아리들의 그림을 보면 헬라스인들의 상상력은 사랑을 사랑의 대상으로 묘사했다. 즉 그들은 에로스(신)을 아름다운 젊은이로, 아프로디테를 지극히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했다. 아가톤 역시 그의 연설에서 에로스를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신적인 존재로 찬양했다. 소크라테스가 교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에로스 개념이다. 만약 에로스가 (아가تون이 연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에 대한 에로스라면,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아름다운 것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에로스를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 좋은 것들은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름다운 것을 결여하고 있는 에로스는 좋은 것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가تون의 주장은 논박된다.

2.10.2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의 논의(201d~212a)

(q2.10.2.1) 그렇다면 에로스가 아름다운 것들을 결여하고 있는데, 좋은 것들이 아름답다면, 그는 좋은 것들을 결여하고 있는 걸 거네. [...] 저는 선생님께 반론할(antilegein)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죠. [...] 아니, 오히려 자네가 반론 못 하는 건 진실(alētheia)에 대해서일세, 친애하는(phioumene) 아가تون. 소크라테스에게 [반론하는 것] 쯤이야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이제 자네는 놓아주겠네.(201c)

(e2.10.2.2) 아가تون은 소크라테스의 결론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와 문답식 논증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201c) 이제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라는 인물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를 전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계속한다.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의 역할을 대신하고,

소크라테스는 아가تون을 대신한다.

(e2.10.2.3) 디오티마라는 이름은 ‘제우스의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다. ‘만티네아’는 만티스(예언자)를 암시하기 때문에 그녀의 거주지 명칭으로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 디오티마는 순전히 허구적인 인물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녀가 아테네인들로 하여금 역병의 발발을 10년 동안 지연 시킬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주장이(201d), 그리고 그녀가 전개하는 에로스에 대한 분석이 소크라테스적인 특징을 갖는다는 점이 그런 의심을 갖게 한다. 그리고 디오티마가 211a~e에서 내놓는 형상 이론은 플라톤의 것이지 소크라테스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가 디오티마로부터 그것을 배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럴듯하지 않다.

(e2.10.2.4) 플라톤이 이 여자 예언자를 소크라테스의 대역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의 등장은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에로스에 대한 연설을 계속 전개하도록 해 준다. 그러면서도 소크라테스 자신은 지식의 탐구자로서 그리고 아이러니한 무지의 가면을 쓴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모르는 자임을 자처하는 소크라테스가 유일하게 알고 있다고 말한 사랑에 관한 일(erōtika)(177e)의 중요성과 권위를 높여준다. 에로스는 바로 이 현명한 예언녀가 행하는 신비 의식의 주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디오티마를 도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화편의 전체적인 이야기 틀에서 생긴다.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를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의 연설에서의 에로스와 성격상 상응한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 자신이 직접 에로스에 대한 찬양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2.10.2.1 에로스의 성격 : 중간자로서의 에로스(201d~204c)

(e2.10.2.1.1) 에로스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에게 에로스는 위대한 신이고 아름답다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아가تون이 했던 말이다.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가 아가تون을 논박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논변을 가지고 논박한다. 에로스는 비록 아름답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추하거나 나쁘지도 않다.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추하고 나쁜 것은 아니다.

2.10.2.1.1 중간적인 암 : 옳은 의견

(q2.10.2.1.1.1) 옳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ortha doxazein) 이유를 제시할(logon dounai) 수는 없는 것이죠. 당신은 알지 못하나요? 그게 아는 것(epistasthai)도 아니요 (왜냐하면, 이유 안 가진 것이 어떻게 암(epistêmê)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지도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있는 것(to on)에 닿아 있는 것이 어떻게 무지일 수 있겠습니까?) 말입니다. 옳은 의견이 바로 그런 것, 즉 사리분별(phronesis)과 무지 사이에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202a)

(e2.10.2.1.1.2) 디오티마는 중간적인 것의 예를 제시한다. 지혜롭지 않은 것이 곧 무지는 아니다. 지혜(sophia)와 무지(amathia) 사이에 옳은 의견이 있다. 옳은 의견은 근거를 대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식이 아니고, 있는 것(to on)과 만난다는 점에서 무지는 아니다. 중간자로서의 에로스는 암의 측면에서 옳은 의견과 같은 것이며 이 점은 뒤에 에로스가 애지자임을 밝히는 논증(203e~204c)에서 분명해진다.

(e2.10.2.1.1.3) 디오티마는 에로스라는 말이 보통 연상케 하는 것과는 반대로 에로스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욕망을 암시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205a~d에서 분명하게 다루어진다. 에로스의 이러한 욕망 일반으로서의 성격은 관계적 성격과 더불어 에로스가 그것의 대상들에 의해서, 즉 그것이 추구하는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것들에 의해서 정의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에 관한 분석은 『국가』(4권 438a이하)에서 전개된다. 거기서 욕망은 대상과 상호 관계적으로 규정된다. 각 욕망은 그 자체로서 단순히 자신의 본래적인 대상에 관계한다. 그러그러한 종류의 대상에 대해서 욕망도 그것에 상응하는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상호 관계적인 욕망으로서의 에로스는 그것이 관계하는 대상의 가치를 갖는다. 좋은 것에 대한 욕망은 좋은 욕망이고, 그 반대는 나쁜 욕망이다. 그러나

만약 욕망을 어떤 개별적인 대상과 결부시키지 않고 추상적으로 고려한다면, 그것은 (즉 욕망 일반이라는 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신적이지도 가사적이지도 않은 이른바 ‘중간적인’ 것이다.

(e2.10.2.1.1.4) 플라톤은 ‘중간자’라는 말을 적어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때때로 중간자는 대립적인 성질들에 관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만약 에로스가 이런 의미에서 중간자라면 그것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며,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며, 가사적이기도 하고 불사적이기도 할 것이다. 다른 의미에서의 중간자는 대립적인 것을 모두 갖는 대신에 대립적인 어느 쪽도 갖지 않는다. 『고르기아스』에서(467e이하) 중간자는 자신의 본성에서가 아니라 그것의 목적이나 사용에서 가치를 갖는 행위들이나 물리적인 대상들이다. 에로스의 중간적인 성격은 이런 종류의 것이다. 그 자체로서 그것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것은 그것의 대상들로부터 가치를 얻는다. 예를 들면 갈증은 마시고자 하는 욕망인데,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것의 가치는 개별적인 상황에서 만족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2.10.2.1.2 신령(다이몬)으로서의 에로스

(e2.10.2.1.2.1) 에로스는 신이 아니다. 앞에서 에로스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욕망한다고 동의했다. 그렇다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전혀 안 가진 자는 신일 수 없다. 에로스는 가사자와 불사자의 중간인 위대한 신령(daimon)이다. ‘다이몬’이라는 말은 시에서 신(theos)과 동의어로 자유롭게 쓰인다. 이를테면 『일리아드』 I.222에서 아테나 여신은 다른 신들(dainones)과 합류하기 위해서 올림포스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신들보다 등급이 낮은 초자연적인 존재자들에게도 사용된다. 이를테면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122)에서 자비로운 수호자들로서 땅을 배회하는 황금 족의 신령들(dainones)이 그 예이다. 그리고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변명』에서(27b~e) 다이몬을 “신 또는 신들의 자식들”로 취급한다. 여기서 디오티마는 다이몬을 신과 사람(불사자와

가사자)의 중간자로 취급한다. 디오티마가 에로스를 다이몬으로 취급하는 것은 에로스를 의인화한 결과이다. 『국가』(X 617d이하)와 『파이돈』(107d~108c)에서도 다이몬은 혼이 지상에서 자신의 삶을 마쳤을 때 혼을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중간적인 것으로 기능한다. 그런가 하면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람에게 성격은 운명, 즉 다이몬이라고 말한다.

2.10.2.1.2.1 다이몬의 기능

(q2.10.2.1.2.1.1) 인간들의 것을 신들에게, 그리고 신들의 것을 인간들에게 해석해 주고 읊겨 줍니다. 인간들로부터는 간구와 제사를, 그리고 신들로부터는 명령과 제사의 대가를 해석해 주고 읊겨 주지요. 그들 양자의 가운데 있어서 그들 사이를 메워 주고, 그래서 그 전체가 그 자체로 자신과 결속되게 해 줍니다. 온갖 예언술도, 그리고 제사, 의례, 주문, 온갖 예언, 주술에 관한 사제들의 기술도 바로 이것을 통해 움직이지요. 신은 인간과 [직접] 섞이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인간들과의 온갖 교류와 대화가 신들에게 (그들이 깨어 있건 잠들어 있건 간에)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일들에 관해 지혜로운(sophos) 자는 신령한 사람인데 반해, (기술[일반]에 관해서건 아니면 특정한 손재주에 관해서건)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는 그저 미천한 재주꾼(banausos)일 뿐입니다. 바로 이 신령들이 많이 있고 다종다양한데, 에로스도 이들 가운데 하나지요.(202e~203a)

2.10.2.1.2.2 에로스의 탄생 신화(203a~e)

(e2.10.2.1.2.2.1) 중간자로서의 신령(dainon)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디오티마의 설명을 듣고 소크라테스는 에로스의 부모가 누군지를 묻는다. 디오티마의 신화는 에로스의 양친이 누가인가를 묘사한다. 이것은 엔코미온(찬양)의 기본 형식이다. 신화는 에로스의 성격들(결핍, 가지려는 욕망, 지혜에 대한 사랑)을 구상화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 기여한다.

2.10.2.1.2.2.1 에로스의 부모

(e2.10.2.1.2.2.1.1) 디오티마가 들려주는 에로스의 탄생에 얹힌 이야기는 이러하다. 아프로디테의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신들 중에 메티스의 아들 포로스가 있었다. 그는 넥타에 취해 제우스의 정원에서 잠들고 있었다. 그때 찬치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 온 페니아는 자신의 ‘대책 없음’을 해결하기 위해 포로스 신의 아이를 갖기로 하고 그와 동침해서 낳은 것이 에로스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로스가 아프로디테의 동반자로서 그녀에게 봉사하는 시동이 된 것이다. 에로스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름다운 존재인 아프로디테의 생일을 계기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2.10.2.1.2.2.2 에로스의 이중성

(e2.10.2.1.2.2.2.1) 에로스는 포로스와 페니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양친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먼저, 그는 언제나 결핍 상태에 있고, 부드러움이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고, 조야하고 더럽고 맨발로 떠돌아다니며, 땅바닥에서 하늘을 이불삼아 잠을 잔다. 그런가 하면, 포로스의 성격도 이어받아서,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획득하기 위해 계책을 꾸미기도 하고, 용감하며 현명한 지혜를 평생 탐구한다. 그런가하면 대단한 협잡꾼이자, 마술사이며 소피스트이기도 하다. 에로스는 본래 불사적인 존재도 가사적인 존재도 아니다. 방도를 잘 갖추고 있어서 전성기를 누리며 살 때가 있고 방도가 없어서 죽어가는 때가 있다. 다이몬으로서의 에로스에 대한 디오티마의 묘사는 (이를테면, “조야하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지혜를 평생 탐구한다는”) 소크라테스를 강하게 연상시킨다.

2.10.2.1.3 애지자로서의 에로스(203e~204c)

(e2.10.2.1.3.1) 신령인 에로스가 애지자임을 보여주는 디오티마의 논증은 이러하다. ①신은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

는 더 이상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신은 이미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로스가 신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혔다. 따라서 에로스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②그렇다고 에로스가 무지한 자인 것은 아니다. 무지한 자는 지혜를 사랑하지 않지만(무지한 자는 자신이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욕구하지 않는다.), ③에로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 하나이고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⑤따라서 지혜를 사랑하는 한에서 그는 지자와 무지한자의 중간자이다. 이처럼 애지자로서의 에로스는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체이다. 소크라테스(또는 아가تون)가 에로스를 아름다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에로스를 사랑받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주체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0.2.1.3.1 무지의 지

(q2.10.2.1.3.1.1) 무지가 다루기 어려운 건 바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거든요. 즉 아름답고 훌륭한 자도 분별 있는 자도 아니면서 자신을 만족스럽게 여긴다는 것 말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가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욕망하지 못합니다.(204a)

(e2.10.2.1.3.1.2) 애지자로서의 에로스에 대한 묘사는 『변명』에서 소크라테스의 모습과 최악의 무지는 자신이 현명하지 않은데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 에로스가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애지자의 자격을 얻는 것은 자신의 무지(無知)에 대한 지(知)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점에서 모르는 자임을 자처하는 소크라테스와 일치한다.

(e2.10.2.1.3.1.3) 애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무지에 대한 지는 『뤼시스』(218a~b)에서도 언급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든 인간이든 간에 지혜로운 자들도 더 이상 지혜를 사랑하지(philosophein) 않으며, 또한 나쁜 자일 정도로 무지(agnosia)를 가진 자들도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네. 나쁘고 무식한(amathes) 어떤 자도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이네. 그러니까 이 나쁜 것, 즉 무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것으로 인해 무지하거나 무식하지는 않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자들이 남아 있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훌륭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자들이 지혜를 사랑하네. 그러나 나쁜 자들은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며, 훌륭한 자들도 마찬가지네.” (218a~b)

2.10.2.2 에로스의 목적 : 행복(204d~205a)

(q2.10.2.2.1) [...]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고 해 봅시다. 「무엇 때문에 에로스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겁니까, 소크라테스님과 디오티마님?」 아니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렇겠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204d)

(e2.10.2.2.2) 소크라테스는 에로스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로서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면 그것이 인간에게 무슨 쓸모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목적)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디오티마는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놓고 우리가 좋은 것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되물으며 대답을 이끌어낸다. 좋은 것을 소유한 자는 행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얻는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대답이 최종적이며 그 이상의 목적을 물을 수는 없다. 좋은 것들을 얻어서 행복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바램이다. 따라서 에로스의 목적은 행복이다.

(e1.10.2.2.3)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은 일반적으로 헬라스 사상에서 인생의 총체적인 목적으로 여겨지며,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조건으로 여겨진다. 전통적인 헬라스 사상에서 성공, 번영 가족의 평안과 결부되며 헬라스 철학자들에 의해서 흔히 덕(areté)과 동일시된다.

2.10.2.2.1 아름다운 것 = 좋은 것

(q2.10.2.2.1.1) 하지만 누군가가 질문을 바꾸어, 아름다운 것 대신 좋은 것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묻는다고 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내가 묻겠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님,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204e)

(e2.10.2.2.1.1) 디오티마가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앞에서(201c)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은 같은 뜻의 말로 사용된다. 좋은 것은 어떤 것이든 아름답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모두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의 이러한 동일시는 『메논』77b에서도 나온다. (“그렇다면 자네는 아름다운 것들을 욕구하는 자를 좋은 것들을 욕구하는 자로 보겠지?”)

2.10.2.3 에로스의 정의 : 좋은 것을 늘 소유하려는 욕망(205a~206a)

(q2.10.2.3.1) 그런데 이 바람(boulesis)과 이 사랑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된 것이며, 모두가 다 좋은 것들이 자신들에게 늘 있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님, 실제로 모두가 똑같은 것들을 늘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어떤 자들은 사랑하는데 어떤 자들은 안 한다고 말하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205a~b)

(e2.10.2.3.2)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 내지는 좋은 것에 대한 사랑이며, 이러한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바람(boulesis)이라고 디오티마는 규정했다. 이러한 에로스 개념은 모든 형태의 욕망 일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에로스 개념에 따르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야 한다.

(e2.10.2.3.3) 일상에서 사람들은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에로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에로스라는 말을 특정한 종류의 사랑에만 좁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디오티마는 이런 용어 사용의 다른 예로

서 ‘창작’ (poiesis)이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한다. ‘창작’은 그대로 풀면 ‘무엇을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달리 말하면 ‘창작’은 없었던 무엇을 있게끔 해주는 원인(205c), 이른바 작용인에 해당되는 활동이다. 이런 의미의 창작은 모든 기술적 활동을 포괄한다. 모든 기술들의 산물은 창작물이며, 그 장본인은 창작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작’이라는 말을 좁혀서 특정 분야의 기술에만, 즉 시가와 운율에 관련된 활동에만 사용한다.

(e2.10.2.3.4) 에로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에로스는 좋은 것들과 행복에 대한 모든 욕망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목적 [행복]에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돈벌이, 체력 단련, 지혜 사랑)인데,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지 않고, 한 가지 방식(성적인 접근)으로 나아가는 자들만 보통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다.

(e2.10.2.3.5) 여기서 디오티마는 아리스토파네스가 주장했던 에로스 개념을 부정한다. 자신의 반쪽을 찾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것이라 해서 무조건 애착을 갖지는 않는다. 나쁘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의 밭이나 손을 절단하려고까지 한다. 인간은 좋은 것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디오티마는 ‘좋은 것에 대한 사랑’이 인간의 보편적인 바람임을 다시 확인한 다음 ‘좋은 것에 대한 사랑’에 두 가지를 덧붙여서 에로스에 대한 정의를 확립한다. 즉 인간은 단순히 ‘좋은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①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며, 나아가서 ②단순히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기를 원한다. 요컨대 사랑이란 좋은 것을 자기 자신 속에 언제나 갖고자 하는 욕망이다. “사랑은 좋은 것이 자신에게 늘(aei, 206a) 있음에 대한 것”이라는 이 규정은 중요하다. 디오티마는 이 정의로부터 “에로스는 불사에 대한 사랑” (207a)이라는 규정을 이끌어낸다.

2.10.2.4 에로스의 일 : 아름다운 것 속에서의 출산(206b~207a)

(q2.10.2.4.1) [...] 모든 사람들이 육체에 있어서 그리고 영혼에 있어서 임신하고 있고, 어떤 나이에 이르게 되면 우리 본성을 낳기를 욕망합니다. 그런데 추한 것 안에서는 낳을 수가 없고, 아름다운 것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교합(synousia)이 낳는 것이거든요. 이 일(pragma), 즉 임신과 출산(gennēsis)은 신적인 것이며, 가사자인 생물 안에 들어 있는 불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화하지 않는 것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한 것은 신적인 모든 것과 조화하지 않는 데 반해, 아름다운 것은 조화합니다.(206c~d)

(e2.10.2.4.2) 에로스의 목적이 ‘좋은 것이 자신에게 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사랑이라 불릴 수 있는가? 앞서 디오티마는 에로스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의 측면에서 에로스를 규정했다면, 여기서는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의 측면에서 에로스를 새롭게 규정한다. ‘좋은 것을 늘 소유’하기 위해 에로스가 하는 일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름다운 것 안에서의 생산(출산)’이다. 디오티마는 이것을 ‘성적 교합에 의한 출산’ 모델에 의지해서 설명한다. 그의 성적 재생산 개념은 조금 특이하다. 양성이 모두 임신을 하며 배우자와의 성적인 교합은 ‘출산’을 위해 필요하다. 육체적 정신적인 측면의 임신과 출산은 인간 일반에게 보편적인 것이다. 이 출산은 아름다운 것 속에서만 일어난다. 임신과 출산은 신적인 것이며 가사자인 생물 안에 있는 불사적인 것이다. 아름다운 것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만이 출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생산을 관장하는 여신과도 같으며 (206c~d), 불사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2.10.2.4.1 출산의 목적 : 불사의 소유(207a~208b)

(q2.10.2.4.1.1) 당신은 자신들의 덕에 관한 불멸의 기억(지금 우리가 바로 그걸 갖고 있죠)이 있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알케스티스가 아드메토스를 위해 죽었으리라고(apothanein), 혹은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뒤따라 죽었으리라고(epapothanein), 혹은 당신들의 코드로스가 자

식들의 왕국을 지켜 주기 위해 죽었으리라고(proapothanein) 생각합니까? 그럴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내 생각에 그들은 모두 불멸의 덕과 그런 영광스런 평판을 위해 그런 일들 모두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더 훌륭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그렇게 하지요. 그들은 불멸의 것을 사랑하니까요.(208d)

(e2.10.2.4.1.2) 에로스가 출산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산은 가사자들이 불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방법이다. 디오티마는 동물들의 생식 욕구와 자식 사랑을, 그리고 인간의 명예욕을 불사에 대한 욕망과 연결시킨다. 모든 동물들은 생식기에 사랑의 열병을 앓는다. 먼저 상대방과 결합하려하고, 그 다음에는 낳은 새끼를 양육하고자 하는데, 새끼를 위해서는 가장 약한 자도 가장 강한 자와 싸우며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사를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인간들의 명예 사랑에서 불사의 동기는 더욱 잘 드러난다. 사람들은 이름을 멀치고 불멸의 명성을 쌓기 위해서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쓰고 노고도 아끼지 않으며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208d~e) 여기서 디오티마는 파이드로스가 사용한 사례들을 재사용하며 그의 설명을 보충한다. 파이드로스의 에로스는 자기희생의 덕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에로스를 찬양했다.

2.10.2.4.2 출산의 성격 : 재생산(207c~209e)

(q2.10.2.4.2.1) 사실 가사적인 것이 다 이런 방식으로 보존되지요. 즉 신적인 것처럼 모든 면에서 늘 같은 것으로 있음으로써가 아니라 늙어가고 떠나가는 것이 그것 자체의 원래 모습과 닮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남겨놓음으로써 보존됩니다.(208b)

(e2.10.2.4.2.2) 가사자가 불사를 추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genesis)에 의한 방법이다. 이 출산(재생산)에 의한 방법은 원래 것이 늙어서 없어지고 대신 같은 종류의 새 것을 남겨 놓는 방식이다. 그런 점에서 출산에 의한 불사는 원래의 것이 그대로 계속 남아 있는 신의 불사와 같

지 않다. 이런 신적인 불사는 에로스가 추구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실 앞서 디오티마가 에로스를 단순히 ‘좋은 것에 대한 사랑’으로 규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좋은 것을 언제나 소유하고자 함’으로 보충해서 규정했을 때 에로스가 추구하는 불사의 성격이 예비되어 있었다. 에로스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소유하는 것’에서 ‘늘(영원히) 소유하는 것’으로 보충한 것은 어떤 것을 실제로 소유했다가 나중에 소유하지 못하게 됨을 전제할 때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정의에 따르자면 에로스가 추구하는 불사는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에로스가 추구하는 대상이 단순히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은 ‘좋은 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충해서 규정하는 데서 이미 마련되었다. 앞서, ‘아름다운 것(좋은 것) 대한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을 결여한,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아름다운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서의 에로스였으므로(200a~e) ‘소유하는 것’으로 보충한 뜻은 단순한 희망 사항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의미가 있다.

(e2.10.2.4.2.3) 『법률』(4권 721b~d)에서 아테네인은 결혼에 관한 법 규를 논의하는 가운데 사실상 성적인 재생산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누구든 서른에서 서른다섯 살 사이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류가 본성상 불사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사람은 누구나 본래 불사를 욕망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말입니다. 죽은 후에 무명인이 아니라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사에 대한 욕망이니까요. 그러니까 인류는 본래 시간 전체와 함께 태어났으며 지금도 동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끝까지 계속 동행할 것입니다. 인류가 불멸하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자식들의 자식들을 뒤에 남김에 의해 하나이자 동일함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에 의한 불사에 참여하는 방식이지요.” 종의 지속과 후속 세대의 기억에 의한 불멸에서 더 나아가 디오티마는 분별(phronēsis), 절제를 혼이나 국가에 생산함에 의한 불멸을 덧붙인다. 이런 활동은 교육이며 우애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2.10.2.4.2.1 자기 보존의 원리(207d~208b)

(q2.10.2.4.2.1.1) 이건 각 동물 하나하나가 살아 있다고, 그리고 같은 것이라고 불리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예컨대 [사람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지지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그가 어느 때고 자신 속에 같은 것들을 갖는 적은 없고, 오히려 늘 새로운 사람(neos)으로 생겨나고, 또 (머리카락, 살, 뼈, 피 등 몸 전체에 있어서) 어떤 것들은 잃는 것도 있습니다.(207d)

(e2.10.2.4.2.1.2) 같은 종류의 새것이 낡은 것을 대신하는 재생산의 방식은 개체가 개체를 낳아 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출산에 적용되는 방식일 뿐 아니라, 변화무쌍한 세계에서 살아 있는 개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똑같은 사람으로 불리는 경우처럼 우리가 각 생물의 개별적 생명과 개인적 동일성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출산과 같은 재생산에 연유한다. 사람은 머리카락이나 살, 뼈, 피 등 신체의 모든 부분에서 일부분은 사라져 가지고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현상은 혼에서도 일어난다. 성향, 성격, 생각, 욕구, 즐거움, 슬픔, 공포 같은 것들은 각 사람 속에서 동일하게 남아있지 않고 생성 소멸 한다. 인식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 우리의 인식은 항상 변한다. 일부는 새로이 생겨나고 일부는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인식과 관련해서 동일한 상태에 있지 않다. 각각의 인식 하나하나도 같은 일을 겪는다. 망각은 암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연습(meletē)은 떠나가는 암 대신에 새로운 암을 다시 만들어 넣어줌으로써 같은 암으로 보일 정도로 암을 보존하는 것이다.

2.10.2.4.3 출산의 두 형태 : 육체와 혼에서의 출산(208e~209a)

(e2.10.2.4.3.1) 디오티마는 육체적인 출산과 정신적인 출산을 구별한다. (이 구별은 파우사니아스의 통속적인 사랑과 천상의 사랑의 구별을 상기시킨다.) 육체적인 임신을 한 자들은 육체적 사랑을 지향하며, 그래서 자식의 출산에 의한 방식으로 불사를 추구한다. 반면에 정신적인 임

신을 한 자들은 분별(phronēsis)이나 덕을 자식으로 뒤에 남긴다. 이를 테면 호메로스나 해시오도스 그리고 다른 시인들이 그랬듯이 불후의 명작을 남기거나, 또는 뤼쿠르고스나 솔론 같은 입법가 내지 정치가들처럼 나라의 경영에 관한 절제와 덕을 낳거나, 또는 아름다운 젊은이를 찾아 교육을 함으로써 정신적 출산을 하여 함께 기른다.

2.10.2.4.3.1 교육을 통한 출산(209b~c)

(q2.10.2.4.3.1.1) 내 생각에 그는 아름다운 자와 접촉하여 그와 사귐으로써 자기가 오랫동안 임신해 온 것들을 낳고 생기게 하니까요. 결에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그를] 기억하며,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을 그와 함께 기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아이들(paides)에 대한 공유보다 훨씬 더 중대한 공유(koinōnia)와 더 확고한 친애(phiilia)를 얻게 됩니다. 아이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불사적인 것들을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긴 누구라도 자신에게 인간적인 아이들보다 이런 아이들이 생기는 쪽을 더 선호할 겁니다.(209c)

(e2.10.2.4.3.1.2) 디오티마는 교육을 통한 출산을 성적 애인 관계로 묘사한다 : 어려서부터 이런 덕들을 혼에 임신한 자는 나이가 차면 출산 하려는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다니게 된다. 요행히 아름다운 육체에다 아름답고 고상하며 잘 갖춘 채 태어난 혼을 겸비한 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logoi)(덕에 관해서,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됨됨이와 해야 할 일들에 관한 이야기거리)의 길이 열려서 이 사람을 가르치려하게 된다. 그는 아름다운 자와 접촉하여 그와 사귐으로써 자기가 오랫동안 임신해 온 것들을 낳는다. 언제 어디서나 그를 기억하며, 태어난 것을 그와 함께 기른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유대와 우애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갖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아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불사적인 것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e2.10.2.4.3.1.3) 디오티마의 설명은 파우사니아스가 찬양한 동성애 관계를 상기시킨다. 거기서도 사랑하는 자가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아름다움을 함께 지닌 소년 애인에게 끌린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의 동기는 소년 애인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데로만 향하고 성적인 만족에로는 향하지 않는다. 소년 애인의 도덕적인 발전은 사랑하는 자가 소년 애인과 관계하여 정신적 자식을 생산함으로써 불사에 참여하는 수단이 된다.

2.10.2.4.4 에로스의 단계적 상승 : 최고 비의(209e~210e)

(q2.10.2.4.4.1)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들에서부터, 올바른 소년 사랑(pai- derastein)을 통해 올라가다가 저 아름다운 것을 직관하기 시작할 때, 그는 거의 끝점에 다다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에로스의 일들을 향해 가는, 혹은 다른 이에 의해 이끌리는 것이란 바로 이것이니까요. 즉 이 아름다운 것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아름다운 것을 목표로 늘 올라가는 것 말입니다. 마치 사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처럼 그는 하나에 서부터 둘로, 둘에서부터 모든 아름다운 육체들로, 그리고 아름다운 육체들에서부터 아름다운 관행들로, 그리고 관행들에서부터 아름다운 배움들(mathēmata)로, 그리고 배움들로부터 마침내 저 배움, 즉 다름 아닌 저 아름다운 것 자체에 대한 배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그는 아름다운 것인 것 그 자체(auto ho esti kalon)를 알게 됩니다.(211b~c)

(e2.10.2.4.4.2) 디오티마는 앞서 말한 에로스적인 일들에 입문하여 올바른 과정을 거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른바 ‘최고 비의’ (ta telea kia epoptika)에 관해서 말해 준다. 이 최고 비의가 보여주는 단계적 상승은 혼에서의 출산을 도모하는 자들(에라스테스, 에로메노스)이 거치는 지적인 성숙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209b~c) 이 단계적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므로 혼에서의 출산을 도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될 것이며, 최고의 경지까지 이를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그래서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가 이 최고 비의를 따라 올 수 있을지 의아스러워한다.(210a)

(e2.10.2.4.4.3) 상승의 단계는 넓게 말해서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개별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행 과정이 있다. 하나는 각 단계 내에서의 일반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단계들 간의 상승이다. 첫 단계는 앞서 언급된 교육적 동성애 관계에서 시작한다.(209b~c) 거기서는 사랑하는 자는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아름다움을 겸비한 소년 애인에게 반응한다. 상승에서 이 반응의 두 측면은 분리되며 각 측면에서 일반화가 이루어진다.

2.10.2.4.4.1 개별 육체의 아름다움

(q2.10.2.4.4.1.1) 이 일을 향해 올바르게 가려는 자는, 어렸을 때 아름다운 육체들을 향해 가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끄는 자가 올바로 이끌 경우 그는 하나의 육체를 사랑하고(eran) 그것 속에서 아름다운 담론들(kaloi logoi)이 생기게 해야 합니다.(210a)

(e2.10.2.4.4.1.2) 사랑하는 자의 상승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성적인 교합을 통한 출산의 욕망을 일깨우는 아름다움이다. 만약 안내자가 그를 바르게 이끌어 간다면(210a) 그의 에로스는 먼저 하나의 육체(사랑받은 자)로 향한다. (여기서 사랑받는 자는 사랑하는 자의 욕망이 아름다움 자체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2.10.2.4.4.2 육체 일반의 보편적 아름다움

(q2.10.2.4.4.2.1) 그 다음에 그는 어느 한 육체에 속한 아름다움이 다른 육체에 속한 아름다움과 동종(同種 : adelphon)임을 깨달아야 하며, 종에 속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할 때, 모든 육체들에 속한 아름다움이 하나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파악하고 나면, 모든 아름다운 육체들을 사랑하는 자(erastēs)가 되어 하나[의 육체]에 대한 이 열정을 (무시하고 사소하다 여김으로써) 느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120b)

(e2.10.2.4.4.2.2) 다음으로,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육체들의 아름다움은 같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의 육체만 사랑하지 않고 모든 아름다운 육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한다. 디오티마는 여기서의 아름다움이 가시적인 형태의 아름다움(to ep'eidei kalon)이라고 말한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는 아름다운 것 속에서 출산하려는 욕망보다 선행한다.) 사랑하는 자의 상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에서 그의 에로스를 떼어내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여러 사물들에 있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인지하고 그것을 선호하게 되도록. 실로 에로스는 애지자이다.

2.10.2.4.4.3 혼의 아름다움

(q2.10.2.4.4.3.1) 그 다음에 그는 육체에 있는 아름다움보다 혼들에 있는 아름다움이 더 귀중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미미한 [아름다움의] 꽃을 갖고 있더라도 혼이 훌륭하다면(epieikes), 그에게는 충분하며 [이 자를] 사랑하고 신경 써 주며 (젊은이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어 줄) 그런 담론들을 낳고 추구해야 합니다.(210b~c)

(e2.10.2.4.4.3.2) 이 단계에서 사랑하는 자는 육체적 아름다움 이상으로 혼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한다. 이것은 『국가』(3권 402c이하)에서 시가교육을 받은 자들의 상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시가 교육은 혼의 아름다움[덕]에 민감해지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아름다운 육체와 훌륭한 혼의 합치이다. 그들은 이런 대상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들이 육체의 아름다움에 갖는 관심은 혼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 만큼은 아니다. 이 단계는 개별적인 혼의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단계다. (사랑하는 자는 소년 애인을 보살피고 교육한다.) 그러므로 법과 제도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은 아직 나오지 않는다.

2.10.2.4.4.4 법과 관행의 아름다움

(q2.10.2.4.4.1)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그가 관행들(epitēdeumata)과 법들(nomoi)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도록(theasasthai),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서로서로 친족적(syngenes)이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강제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육체에 관련된 아름다움이 사소한 어떤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210c)

(e2.10.2.4.4.2) 혼의 아름다움에서 법과 관행의 아름다움으로 상승은 지적이다. 양자의 아름다움은 종류가 같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같은 원리들이 혼과 국가에 아름다움과 질서를 부여한다. (“우리 각자 안에는 나라에 있는 것들과 똑 같은 종류들과 성격들이 있다는 데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지극히 필연적이겠지?” [435e] “정체의 종류가 여럿 있듯, 인간들의 기질의 종류도 그만큼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자네는 알고 있는가?” [544d]) 디오티마는, 헬라스인들이 보통 그랬듯이, 품성과 습관은 그것들이 좋은 것인 한 미적인 요소를 표출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아름다움은 하찮게 여기게 된다고 그녀는 말한다.

2.10.2.4.4.5 지식의 아름다움

(q2.10.2.4.4.5.1) [이끄는 자는 그를] 관행들 다음으로 지식들(epistēmai)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이번에는 지식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이제는 아름다움 여럿을 바라보고(blepein) 있기에, 더 이상 어린 소년이나 특정 인간이나 하나의 제도의 아름다움에 흡족해 함으로써, 하나에게 있는 아름다움에 노예처럼 종노릇하면서 미천하고 하찮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의 큰 바다로 향하게 되고 그것을 관조함(theorein)으로써, 많은 아름답고 격조 높은 담론들과 사유들(dianoēmata)을 아낌없는 지혜 사랑(phi losophia) 속에 낳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거기서 힘을 얻고 자라나서 어떤 단일한 맑을, 즉 다음과 같은 아름다움에 대한 맑을 직관하게(kat idein) 됩니다.(210c~e)

(e2.10.2.4.4.5.2) 지식(학문)의 아름다움은 그것의 보편성 때문에 앞 단계들의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우월하다. 여기서는 이전 단계들의 모든 아름다움(육체에 속하는 아름다움과 혼에 속하는 아름다움)을 포괄하는 아름다움의 대양(大洋)으로 눈을 돌리고 그것을 관조한다. 그렇게 해서 힘을 집중하여 마침내 모든 노력의 최종 목적인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지식에 이를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데아인 아름다움 자체는 육체와 혼에 속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이 아름다움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지식의 아름다움을 인지한다는 것은 그런 보편적인 지식에 눈을 뜬다는 것을 의미한다.

2.10.2.4.4.6 아름다움 자체로의 상승(210e~212a)

(q2.10.2.4.4.6.1) 그러니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아름다운 것들을 차례차례 올바로 바라보면서, 에로스의 일들에 대해 여기까지 인도된(paidagōgēthēnai) 자라면, 이제 에로스의 일들의 끝점에 도달하여 갑자기(exaiphnēs) 본성상 놀랍고 아름다운 어떤 것을 직관하게(katopsetai)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님, 앞서의 모든 고통들의 최종 목표이기도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210e)

(e2.10.2.4.4.6.2) 오름길의 마지막 목표는 아름다움 자체이다. 앞의 모든 단계들은 이것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상대성과 변화로부터 자유롭고 영원하며 단순함과 위엄에서 절대적이다. 그것은 지적 직관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갑자기’ 알려진다. 마치 신비종교의 신성한 대상들이 숭배자들의 눈에 번쩍이는 빛과 함께 갑자기 드러나듯이. 아름다움 자체가 모든 고행의 최종 목표인 이유는 이것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것과 함께 지내는 삶에서만 덕의 모상들(eidōla)이 아니라 참된 덕을 낳는 일이 가능하다. 참된 덕을 낳아 길렀을 때 신이 친애하는 자(theophiles)가 될 수 있고 불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10.2.4.4.6.1 아름다움의 이데아

(e2.10.2.4.4.6.1.1) 디오티마는 아름다움 자체를 “신적이며 단일 형상인 아름다운 것 자체” (211b2), “순수하고 정결하고 섞이지 않은 아름다운 것 자체” (211e1)라고 표현한다. 이 아름다움 자체는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이다. 디오티마는 이 아름다움 자체를 아름다운 모든 사물들과 구별하며, 아름다운 모든 사물들은 아름다움 자체에 ‘관여하는’ (211b3) 것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그 성격을 사물들의 성격과 대비시킨다. 이러한 디오티마의 묘사는 『파이돈』, 『국가』에서 언급되는 이데아 이론과 같다.

(e2.10.2.4.4.6.1.2) 이데아론은 플라톤의 대화편들 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형상론은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직결되어 있다. 『에우튀프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아버지를 살인 혐의로 고소하는 에우튀프론의 행위가 경건한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얻기 위해서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여기서 형상은 그것의 사례들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메논』에서는 덕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여기서는 덕이 가르쳐질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타고 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함이며, 덕의 형상은 그것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다른 속성(가르칠 수 있음)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향연』에서 이데아의 기능은 또 다르다. 먼저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욕망의 종점이다. 사람들의 모든 욕구적 삶은 아름다움 자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지식의 종점이기도 하다.

(e2.10.2.4.4.6.1.3) 앞에서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아름다움 자체와 좋음 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향연』의 상승 과정은 『국가』 6권의 해의 비유를 예상하게 한다. 거기서 좋음은 이데아이다.(508e3, 517a1, 534c1) 그것은 인식될 수 있는 것이며(517c, 504d3, 518c~d, 534c,e), 로고스(추론, 논변)에 의해서 파악되며(511b, 534c) 다른 이데아들과 구별된다.(534b) 그리고 이데아로서 그것은 존재하는 것(507c)이며, 아름다움 자체와 같은 수준의 것이

다. 좋음의 이데아와 가지적인 세계와의 관계는 해와 가시적인 세계와의 관계와 같다. 해는 빛의 원천이다. 이 빛에 의해서 눈은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고 사물들은 보일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렇듯이 좋음은 진리의 원천이다. 이 진리의 빛에 의해서 흔은 인식 능력을 갖게 되고 인식의 대상은 인식 가능한 것이 된다. 좋음의 이데아는 『향연』에서 아름다움의 이데아처럼 지식의 궁극적 원리이다. 아름다움 자체와 좋음 자체는 설명의 궁극적 원리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목적론적으로 설명될 필요는 없다. 즉 아름다움 자체와 좋음 자체는 존재 자체와 동등하지 않고, 위엄과 힘에서 존재 자체를 넘어서선다. 『국가』와 『향연』은 이 점에서 『티마이오스』의 필연에 관한 이론과 일관성을 유지한다.

2.10.2.4.4.6.1.1 아름다움 자체(이데아)의 성격

(e2.10.2.4.4.6.1.1.1) ①불변성. 아름다움 자체는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211a1~2) 그것은 어떤 것도 겪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사물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211a8) ②단일성(순수성). 아름다움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도 자신과 대립적인 성질(추함)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운데 다른 면에서는 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아름다운데 다른 때는 아닌 것도 아니고, 어떤 것과의 관계에서는 아름다운 것인데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는 추한 것도 아니며, (어떤 자들에게는 아름다운데 다른 자들에게는 추한 것이기에) 여기서는 아름다운데 저기서는 추한 것도 아니다.

(e2.10.2.4.4.6.1.1.2) 『향연』의 이 부분은 『국가』(5권 475a, 479a~d, 7권 523a~524c)의 지식(epistêmê)과 의견(doxa)에 관한 이론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파이돈』(74a~c)에서 지식은 상기임을 입증하는 두 번째 논증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 논증의 주요 전제는 같음의 형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같은 무엇인가가 있다고 말할 것이네. 내가 말하는 ‘같은 어떤 것’ 이란 나무토막이 나무토막과 같다거

나 돌이 돌과 같다거나 그런 등속의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것, 즉 같음 자체이네.” 같음 자체는 여러 같은 사물들과 구별되는 어떤 것이다. 같은 사물들은 때로는 이것과는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과는 같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같음 자체는 같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같음 자체와 같은 것들이 구별되는 점은 같음 자체는 대립되는 성질(같지 않음)을 갖지 않는 반면에 같은 사물들은 대립되는 성질을 갖는다는 점이다.

2.10.2.4.4.6.1.2 아름다움 자체(이데아)와 사물 간의 관계 : 분리와 관여

(e2.10.2.4.4.6.1.2.1) 아름다움 자체는 얼굴이나 손과 같은 육체의 일부 형태로 나타나지도 않고, 담론이나 지식으로 나타나지도 않으며, 다른 어떤 것 안에(동물, 땅, 하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 늘 단일 형상(monoeides)으로 있는 것이다. 생성 소멸하는 다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그것에 관여하지만 그것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

(e2.10.2.4.4.6.1.2.2) 『티마이오스』(52a~c)에서 플라톤은 참으로 있는 것(형상, 이데아)은 공간 속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 안에 있음은 모상(eidōlōn)의 특성이다. 이데아는 외부에서 어떤 것도 자신 속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신이 다른 어떤 것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아름다움 자체는 그 자체로만 늘 단일하게 존재한다. 다른 아름다운 사물들 그것을 분유함에 의해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름다움 자체의 모상들(eidōla, 212a4)이다.

3. 소크라테스 찬양 연설(212c~223a)

3.1 알키비아데스의 등장(212c~215a)

(e3.1.1) 소크라테스의 연설이 끝난 후 술 취한 알키비아데스가 소란을 피우며 등장한다. 그는 아가تون에게 화관을 씌워주려 왔다고 하며 아가تون 옆에 앉는다. 소크라테스를 알아보고 빈정대는 말을 건넨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연인인 알키비아데스의 질투심을 두려워하며 아가تون에게 도움을 청한다. 알키비아데스는 아가تون에게 머리띠를 달라고 해서 논의에서 언제나 승리자인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달아주고 앉는다. 그리고는 참석자들에게 술을 권한다. 큰 술동이를 가져오게 해서 자신이 먼저 한 잔 가득 채우게 해서 마시고 역시 소크라테스에게도 그렇게 하게 한다. 에뢰시마코스와 알키비아데스 간에 간단한 인사가 오간 후에 에뢰시마코스는 알키비아스데스에게 아무 연설도 안하고 술만 마셨으니 연설을 하라고 요청한다. 에뢰시마코스는 소크라테스가 자신 외에 다른 무엇을 찬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소크라테스 앞에서는 찬양 연설을 할 수 없노라고, 굳이 한다면 소크라테스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겠다고 대답한다.

(e3.1.2) 알키비아데스의 등장과 함께 장면 전환은 박진감 있게 진행된다. 술에 취해서 머리에 화환을 두르고 등장하는 알키비아데스는 마치 디오뉘소스의 화신 같다. 그가 아가تون의 머리에 화관과 함께 달아주었던 리본 몇 개를 다시 받아서 소크라테스에게 달아준 것은 아가تون이 비극에서의 승리자라면 소크라테스는 논의에서 누구와 상대하든 항상 승리하는 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아가تون은 소크라테스에게 지혜의 우열에 관한 판단을 디오뉘소스에게 맡기자고 제안했었다.(175e) 여기서 알키비아데스는 디오뉘소스의 화신으로서 상징적으로 그 판결을 승인한다.

3.2 알키비아데스의 연설 : 소크라테스를 친양함(215a~222b)

(q3.2.1) 나는 그 분이 조각가의 작업장들에 앉아 있는 이 실레노스[조각상]들과 가장 비슷하다고 주장하네. 목적(牧笛 : syrinx)이나 피리(aulos)를 들고 있는 것으로 장인들이 만들곤 하는 그젓들 말이네. 그것들을 양쪽으로 열어 제치면, 안에 신들의 상(像)들(agalmata)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지. 나는 또한 그 분이 사튀로스인 마르쉬아스와 닮았다고 주장하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 적어도 모습(eidos)에 관한 한 선생님이 이것들과 비슷하다는 데는 선생님 스스로도 아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실 겁니다.(215a~b)

(e3.2.2)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를 내부에 신성한 상들을 지닌 피리를 든 실레노스 조각상과 사튀로스인 마르시아스에 비유한다. 우선 모습에서 닮았고, 다음으로 피리를 연주자라는 점에서 그렇다. 피리 연구자로 치자면 소크라테스는 마르시아스를 훨씬 능가한다. 그는 도구 없이 말만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도록 사로잡는다.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행태를 ‘방자함’ (hybistēs)이라는 비난조의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행태를 외면적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말이다.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와 실레노스의 닮은 점을 외면과 내면을 대비시켜 묘사한다. 소크라테스가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좋아하여 가까이 하는 것은 곁으로 볼 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쫓아다는 것 같다. (사튀로스가 특정 때문에 요정들을 쫓아 다니는 것처럼.)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실레노스 상 내부의 신성한 모상들처럼 절제와 용기, 지혜 등의 미덕들로 충만하다. 그래서 외면적 행태의 방자함과는 대조적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은 신적이요 황금과도 같다고 표현된다. 소크라테스의 언행에서의 상반된 이러한 이중성은 ‘아이러니’라는 표현으로 집약되며, 소크라테스의 남다른 특징으로 묘사된다. 알키비아데스는 연설의 말미에 이렇게 모상에 빗대어 소크라테스를 묘사하는 이유를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구와도 닮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독특함 때문이라고 덧붙인다.(221d)

3.2.1 가르침의 영향력

(q3.2.1.1) 어쨌거나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하는 다른 연설들을 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연설가가 하는 것이라 해도,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선생님의 말을 듣거나 혹은 선생님의 말들을 다른 사람이 전해 주는 것을 들을 때는, 말하는 자가 아주 보잘 것 없는 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듣는 우리가 여인이건 남자건 젊은이건 간에, 우리는 자지러지고 매료됩니다.(215d)

(e3.2.1.2)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말의 영향력을 실레노스가 피리 연주로 사람들을 무아지경의 광적인 상태에 빠뜨리는 것에 비유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이 끼치는 효력도 이와 같아서 누구든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게 되면 거기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노예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말의 효력을 살무사에게 물리는 것에 비유한다. 그의 말은 젊은이들의 혼을 살무사보다 더 사납게 붙들고 늘어져서 무엇이든 행하고 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말은 지성(nous)이 담겨 있으며 가장 신적이고 덕의 가장 많은 상(像)들(agalmata)을 포함하고 있으며, 훌륭한 자가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모든 것들과 연관이 있다.(222a)

3.2.2 시침 떼기(에이로네이아)

(q3.2.2.1)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이 분이 아주 짜증을 부리면서 (eirōnikōs) 그리고 늘상 보였던 자기 특유의 방식으로 말씀하셨네. ‘친 애하는 알키비아데스, 자네는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자가 [전혀] 아닌 것 같네. 자네가 나에 관해 말하는 것들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걸 통해 자네가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다면 말이네. [...] 하지만, 복 받은 자여, 내가 실은 아무 것도 아닌 자인데 자네가 그 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닐지 더 잘 살펴 보게.(218d~219a)

(e3.2.2.2) ‘에이로네이아’는 소크라테스가 대화 과정에서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것처럼 딴전을 피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구사하는 대화법의 한 가지 특징이다. 그가 아이러니하게 말하는 사례는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 자신과 교육적 동성애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을 두고 청동을 황금과 맞바꾸려는 것과 같다고 평하는 대목에서 볼 수 있다.(219a) 소크라테스 자신 속에는 알키비아데스가 기대하는 그런 훌륭한 능력(황금)이 없다고 시침을 뗈다.

(e3.2.2.3) 에이로네이아를 대화법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의미를 폭넓게 적용하면 소크라테스 자신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외면은 실레노스의 방자함에 비견되는 반면에, 내면은 신과 황금의 아름다움에 비견된다. 겉으로 볼 때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자들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그들 주변에 머물면서 활활해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같다. 이런 모습은 실레노스를 닮았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절제로 가득하고 지혜와 용기 등 온갖 미덕으로 충만하다. 알키비아데스의 구애 사건은 소크라테스의 이와 같은 아이러니한 행태의 일면을 보여준다. 알키비아데스가 고백하듯이, 그는 겉보기에는 알키비아데스의 아름다움에 반해 쫓아다니는 구애자(에라스테)인양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키비아데스가 시종 구애를 하는 사랑받는 소년(에로메노스)의 위치에 있었다. 또한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방자한 사튀로스의 가죽에 비유한다. 그의 말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우습다고 느껴진다. 그런 단어와 구절들을 바깥에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은 짐 나르는 노새, 대장장이, 갖바치, 무두장이 같은 것들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겉으로 들으면 우스울 수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지성(nous)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언행과 태도에서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과 놀이를 즐기면서 온 삶을 보낸다.(216e)

3.2.3 내면의 덕들

(e3.2.3.1) 알키비아데스는 실레토스를 뱃은 소크라테스의 내면은 절제로 가득하고 지혜와 용기 등 온갖 미덕으로 충만하여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재물, 세속의 명예 같은 것을 돌을 대하듯 무가치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소크라테스를 유혹했던 일을 자세히 고백하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의 절제력을 드러내 보이며, 여러 일화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의 다른 덕들을 칭송한다.

3.2.3.1 절제 : 알키비아데스의 유혹을 이김(217a3~219d)

(e3.2.3.1.1)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가 꽂다운 나이의 젊은이에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소크라테스와 교육적인 동성애 관계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유혹을 하며 접근하지만 기대에 어긋난다. 침대에 같이 눕게 되었을 때조차도 통상적인 동성애에서 기대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의 이런 태도를 한편으로는 절제의 미덕으로 표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방자함으로 표현하는데 그의 이러한 표현 역시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한 성격을 말해 준다.) 애타는 마음으로 상대를 유혹했지만 소크라테스가 보여 준 것은 그가 기대했던 육체적 사랑의 반응이 아니라 정신적 사랑의 반응(대화)이었다. 소크라테스의 그러한 반응은 알키비아데스에게는 당혹감 내지는 심적인 고통을 주는 방자함이었던 것이다. 알키비아데스는 소년 애인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이런 태도를 일종의 기만이라고 불평한다. 그는 자신이 상대방의 에라스테스인 양 밀도록 만들고, 실제로는 알키비아데스가 시종 구애를 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는 사랑해 주는 어른이 아니라 사랑받는 소년이었던 셈이다.

3.2.3.2 사색의 능력과 여러 덕들

(e3.2.3.2.1) (1)소크라테스는 사색의 근기가 누구보다도 깊고 강했다.

출정 중 어느 날 새벽부터 소크라테스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 한 자리에 서서 사색에 몰두하기도 했다. 소크라테스는 향연에 참석하러 아리스토데모스와 함께 아가تون의 집에 가는 길에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늦게 도착했다.

(e3.2.3.2.2) (2)전투에서의 용기도 남달랐다. 전투 중 부상당한 알키비아데스를 구해준 것은 소크라테스뿐이었다. 그 전투의 공으로 소크라테스에게 포상을 추천했지만 마다하고 알키비아데스에게 상이 돌아가도록 했다. 군대가 퇴각할 때에도 소크라테스는 매우 침착하였고 적들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의기 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모두들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다.

(e3.2.3.2.3) (3)소크라테스는 누구보다도 고생(ponoi)을 잘 견뎠다. 출정 중 보급이 끊겼을 때 잘 견뎠고 겨울 추위도 잘 견뎠다. 무서리가 내린 아주 추운 날에도 다른 사람들은 옷을 껴입고 신발에다 펠트와 양 가죽을 둘둘 말아 두르고 나갔지만 소크라테스는 늘 입고 다니던 외투를 그냥 걸치고 맨발로 다녔다. (5)잔치를 즐길 때는 누구보다도 잘 즐겼다. 술을 마시려 하지 않았지만 일단 마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능가했고, 아무도 소크라테스가 취한 본 적이 없다.

3.2.4 소크라테스의 응답(222c~223b)

(e3.2.4.1) 알키비아데스는 연설 끝에 아가تون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 (소크라테스의 구애에 기만당하지 말하는)을 덧붙였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를 두고 알키비아데스의 솔직한 이야기가 실은 자신과 아가تون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었던 것이라고 응답한다.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의 연설을 사튀로스 극에 비유함에 의해 알키비아데스가 자신을 실레노스에 비유한 것을 되갚는다. 소크라테스는 알키비아데스만을 사랑하고 아가تون은 알키비아데스의 사랑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알키비아데스의 생각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자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아가تون도 맞장구를 치며 소크라테스의 옆에 앉겠다고 하고, 알키비아데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오른쪽으로 도는 찬양의 순서를 구실삼아 아가頓을 옆에 앉도록 만든다.

4. 마무리(223b~d)

(e4.1) 아가تون이 소크라테스 곁으로 자리를 옮기려 할 때 술꾼들이 들이닥쳐 술자리는 다시 소란스러워졌고 술을 펴 마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된다. 몇 사람은 자리를 뜨고, 아리스토데모스는 잠들었다가 새벽녘에 깨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떠났거나 잠들었는데 아가تون과 아리스토파네스 소크라테스만이 대화를 하면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본다. 소크라테스는 같은 사람이 희극을 만드는 기술과 비극을 만드는 기술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리스토파네스와 아가تون이 차례로 잠들었고, 소크라테스는 그곳을 나와 뤼케이온으로 가고 아리스토데모스가 그 뒤를 쫓는다.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목욕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보낸 후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가서 쉰다.

참 고 문 헌

1) 텍스트

PLATON, *Symposium*: in John BURNET (ed.), *Platonis Opera*, vol. II,
(Oxford Classical Texts), Oxford : Clarendon Press, 1991
(rep. of 1901 ed.)

2) 번역

- 박희영 (역), 『플라톤, 향연 : 사랑에 관하여』, 문학과지성사, 2003
- ALLEN, R. E. (tr. with comm.), *Plato : The Symposium*,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1991
- COBB, William (tr. with introd. and comm.), *Plato's Erotic Dialogues : The Symposium and The Phaedrus*, SUNY Press, 1993
- GILL, Christopher (tr.), *Plato : The Symposium*, Penguin Books, 1999
- GRIFFITH, Tom (tr.), *Symposium of Plat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1986년판의 rep.)
- HAMILTON, Walter (tr.), *Plato : The Symposium*, Penguin Books, 1951
- JOWETT, Benjamin (tr.), *Plato : Symposium and Phaedrus*, Dover Publications Inc., 1993
- LAMB, W. R. M. (tr.), ‘*Symposium* : in *Plato : Lysis, Symposium, Gorgias*’, *Loeb Classical Library 166*,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1925년판의 rep.), pp.73-245

- NEHAMAS, Alexander & Paul WOODRUFF (trs.), *Plato : Symposium*, Indianapolis/Cambridge : Hackett Publishing Co., 1989
- SCHLEIERMACHER, Friedrich (tr.), *Platon, Das Gastmahl*: in Dietrich KURZ (ed.), *Platon Werke in Acht Bänden, Griechisch und Deutsch, Bd. III*, Darmstadt :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4
- WATERFIELD, Robin (tr.), *Plato : Symposium*, Oxford World's Classic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3) 주석 및 연구서

- ALLEN, R. E. (tr. with comm.), *Plato : The Symposium, The Dialogues of Plato, vol. 2*,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1991
- ANDERSON, Daniel E., *The Masks of Dionysos : A Commentary on Plato's Symposium*, Albany : State University Press, 1993
- BENARDETE, Seth, *On Plato's Symposium / Über Platons Symposium*, München : Carl Friedrich von Siemens Stiftung, 1994
- BURY, Robert Gregg, *The Symposium of Plato*, 2nd ed., Cambridge : W. Heffer and Sons Ltd., 1969
- CARSON, Anne, *Eros the Bittersweet : An Essay*, Princeton, 1986
- COBB, William (tr. with introd. and comm.), *Plato's Erotic Dialogues : The Symposium and The Phaedrus*, SUNY Press, 1993
- DOVER, K. J., *Greek Homosexuality*, London, 1989
_____, *Greek Popular Morality in the Time of Plato and Aristotle*, Oxford, 1974
- _____, *Plato : Symposi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GAUSS, H. *Philosophischer Handkommentar zu den Dialogen Platons II/2. Die Dialog der literarischen Meisterschaft Phädo*,

- Symposium, Staat und Phädrus*, Frankfure a.M., 1958
- GILL, C., N. POSTLETHWAITE & R. SEAFORD (eds.), *Reciprocity in Ancient Greece*, Oxford, 1998
- GOULD, Thomas, *Platonic Love*, New York : The Free Press, 1963
- GRAEFE, S., *Der gespaltene Eros : Platons Tried zur Weisheit*, Frankfurt a.M. et al., 1989
- GRODEN, Suzy Q, John A. BRENTLINGER & Leonard BASKIN, *The Symposium of Plato*, Amherst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70
- HALPERIN, David M., John J. WINKLER & Froma I. ZEITLIN (eds.), *Before Sexuality : The Construction of Erotic Experience in the Ancient Greek World*, Princeton, 1989
- HALPERIN, David M., *One Hundred Years of Homosexuality and Other Essays on Greek Love*, New York, 1990
- ISENBERG, Meyer W., *The Order of the Discourses in Plato's Symposium*, Chicago, 1940
- KONSTAN, David., *Friendship in the Classical World*, Cambridge, 1997
- KONSTAN, David., *Sexual Symmetry : Love in the Ancient Novel and Related Genres*, Princeton, 1994
- LISSARRAGUE, Francois (tr. by Andrew SZEDY-MASZAK), *The Aesthetics of the Greek Banquet : Images of Wine and Ritual*, Princeton, 1990
- MARCEL, R. Marsile Ficin : *Commentaire sur le Banquet de Platon*, Paris, 1956
- MITCHELL, Robert Lloyd, *The Hymn to Eros : A Reading of Plato's Symposiu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3
- MORGAN, D. N., *Love : Plato, the Bible and Freu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1964

- MURRAY, Oswyn, *Sympotica : A Symposium on the Symposium*, Oxford : Clarendon Press, 1990
- NYGREN, A (tr. by P. S. Watson). *Agape and Ero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OSBORNE, Catherine, *Eros Unveiled : Plato and the God of Lov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PRICE, A. W., *Love and Friendship in Plato and Aristotle*, Oxford, 1989
- REYNEN, Hans, *Platon Symposium*, Aschendorffs Sammlung, Text/Kommentare, Muenster, 1962
- RIST, J. M., *Eros and Psyche : Studies in Plato, Plotinus and Origen*, Phoenix Supplementary vol. 6, Toronto, 1964
- ROBIN, Leon, *Theorie platonicienne de l'amour*, Paris, 1933 (2nd ed. Paris, 1964)
- Rosen, Stanley, *Plato's SYMPOSIUM*, Yale University Press, 1968
- RUPRECHT, Louis A., Jr., *Symposia : Plato, the Erotic, and Moral Value*, SUNY, 1999
- SANTAS, Gerasimos, *Plato and Freud : Two Theories of Love*, Basil Blackwell, 1988
- SHARON, Avi, *Plato's Symposium*, Newburyport, MA : Focus Philosophical Library, 1998
- SIER, Kurt, *Die Rede der Diotima : Untersuchungen zum platonischen Symposium*, Teubner, 1997
- SIRCELLO, Guy, *Love and Beauty*, Princeton, 1989
- WINKLER, John J., *The Constraint of Desire : The Anthropology of Sex and Gender in Ancient Greece*, New York, 1990

4) 연구 논문

강대진, 「플라톤 『향연』의 서술구조와 그 속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 모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강상진, 「플라톤『향연』의 틀 이야기 : 독특한 거리두기」, 한국서양고전학회, 『서양고전학연구』 제15집, 2000, pp.25-46
- 김혜경, 「『향연』에서의 이탈과 상승」, 한국철학회, 『철학』 제79집, 2004, pp.135-156
- 이경직, 「플라톤의 『향연』편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짚은이 교육」, 한국서양고전학회, 『서양고전학연구』 제14집, 2000, pp.93-113
- 이기백, 「플라톤의 에로스론 고찰」, 한국철학회, 『철학』 제34집, 1990, pp.145-169

『철학사상』 별책 2권

- 제 1a 호 철학의 주요 개념 1·2 / 백종현
제 2 호 『밀린다 광하』 / 서정형
제 3 호 데카르트 『방법서설』 / 윤선구
제 4 호 로크 『통치론』 / 정윤석
제 5 호 루소 『사회계약론』 / 진병운
제 6 호 칸트 『실천이성비판』 / 박정하
제 7 호 헤겔 『법철학』 / 강성화
제 8 호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 정원규
제 9 호 밀 『공리주의』 / 김영정 · 정원규
제 10 호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백승영
제 11 호 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 손철성
제 12 호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이선일
제 13 호 프레게 『산구의 기초』 / 최 훈
제 14 호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 박정일

『철학사상』 별책 3권

- 제 1a 호 『대학』 / 박성규
제 2 호 맹자 『맹자』 / 이해경
제 3 호 나가르주나 『중론』 / 서정형
제 4 호 조선전기 이기론 / 허남진
제 5 호 조선전기 수양론 / 정원재
제 6 호 조선전기 심성론 / 김영우
제 7 호 조선전기 경세론과 불교비판 / 강중기

- 제 8 호 플라톤『국가』 / 김인곤
- 제 9 호 아리스토텔레스『니코나코스 윤리학』 /
김남두 · 김재홍 · 강상진 · 이창우
- 제 10 호 토마스 아퀴나스『신학대전』 / 박경숙
- 제 11 호 데카르트『성찰』 / 윤선구
- 제 12 호 로크『인간지성론』 / 김상현
- 제 13 호 라이프니츠『단자론』 / 윤선구
- 제 14 호 몽테스키외『법의 정신』 / 진병운
- 제 15 호 흄『인설론』 / 장동익
- 제 16 호 칸트『순수이성비판』 / 김재호
- 제 17 호 헤겔『정신현상학』 / 강성화
- 제 18 호 마르크스『자본론』 / 손철성
- 제 19 호 제임스『실용주의』 / 정원규
- 제 20 호 니체『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 백승영
- 제 21 호 후설『유럽학문의 위기』 / 정은해
- 제 22 호 비트겐슈타인『철학적 탐구』 / 신상규
- 제 23 호 하이데거『언어로의 도상』 / 이선일
- 제 24 호 쿤『과학혁명의 구조』 / 박은진
- 제 25 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 /
최병일 · 이태수 · 심재룡 · 김영정

『철학사상』 별책 제5권 제4호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E-mail: philinst@plaza.snu.ac.kr

전화: 02) 880-6223

팩스: 02) 874-0126

발행일 2005년 4월 28일

인쇄일 2005년 4월 30일

출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9 788991 280281

ISBN 89-91280-28-5

